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진지한 마음으로 인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유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이 우선임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재물이 이 땅에서 스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며 패역하고 악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승리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33)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2월 1일 (토) 제 1469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교회 · 폭력문화 · 공립학교 불신 점증

바나리서치, '2014 3대 신앙적 문화적 경향 설문조사 결과 밝혀

교회나 정부단체들 그리고 결혼과 같은 제도들(Institutions)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 단위들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더 제도에 대한 신뢰대신 불신과 더불어 회의적인 시각으로 이를 지켜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13년 한해만 해도 미국인들은 의회나 정당들과 같은 제도들과 지도자들의 행태에 강력한 반감을 표명했다. 즉 "오바마 케어"실행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간의 '밀당'결렬로 연방정부가 서툰 퇴장 제도는 이미 "깨어진 약속"이라는 비판론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AP통신은 2013년을 "부작용, 불일치 그리고 불신의 해"였다고 명명할 정도였다.

바나리서치는 그러나 제도에 대한 가치들을 묻는 회의론자들이 증가하는 반면, 오히려 미국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후원하고 옹호하고 있다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설문 조사를 통해 발견했다. 다시 말해서, 교회, 폭력의 문화 그리고 공립교육제도 3가지 제도권 영역에서 일고 있는 찬반 논의가 바로 2014년을 이끌 3대 신앙적, 문화적 추세라고 말한다 (Three Major Faith and Culture Trends for 2014).



교회, 폭력문화, 공립교육제도 등 3가지 제도권 영역에서 일고 있는 찬반 논의가 2014년을 이끌 3대 신앙적, 문화적 추세로 나타났다.

1. "교회"의 역할은 회의론자들과 변종론자들을 동시에 만들고 있다.

지역교회의 가치에 대해 논의할 때, 미국인들은 다음과 같이 3가지 그룹들로 나누어지게 된다: 1)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해야 한다 2)출석할 필요가 없다 3)지역교회에 출석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등 미국인들은 반드시 교회에 나가야 한다, 아니면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관망하는 층으로 정확하게 3등분 된다.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교회무용론 또는 교회에 대한 불신은 오늘날의 언어와 영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영혼 또는 영성이란 견지에서, 신앙을 논의할 때, 대부분의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아닌" 신앙인으로 표명한다. 즉 영성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인정하면

서도, 이미 조직화되고 구성되어진 종교 즉 교회공동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영성이나 제도화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집단(Nones) 역시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차원에서의 교회생활에 아무런 매력이나 호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접두사 후(Post)가 신앙의 문제에도 침투해, 여러 가지 신조어들이 발생하고 있을 정도다(Post-Christian, Post-denominational, Post-evangelical, Post-religious).

그렇다면 교회 지도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가?

이번 설문 결과는 바로 "영적 본질에 대한 경신의 위급한 심각성"을 제시한다. 바로 교회에 불신이나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배 스타일이나 옷차림, 프로그램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공동체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10가지 이유들 중 39%의 사람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손꼽았고, 반대로 63%의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전반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제도권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3/4은 삶을 보다 의미있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40%의 성인들은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들의 찾아 나서는 의미와 영성에 대한 대안을 교회는 강구하고 모색해 제시해줘야만 한다.

2. 미국인들은 "폭력 문화"와 갈등을 벌이고 있다.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권

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폭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정부나 공권력을 가진 단체들은 반드시 시민들을 보호하고 무력하고 선량한 사람들이 폭력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스턴 마라톤 폭발물 테러, 뉴타운초등학교 총격 사건들과 같은 무서운 폭력의 발생 앞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무력감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이다.

실제로 이번 설문 결과는 미 성인들 중 36%가 오늘날 폭력이 미국사회에서 만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 공립 학교에서의 "왕따(bullying)"를 들고 있을 정도이다. 학교와 같은 안전한 환경에서 어떻게 왕따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괴롭힘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여기에 갱폭력(34%), 가정폭력(33%) 역시 주된 폭력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3면으로 계속)

2014,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라

리더십네트워크, 존 오트버그 목사의 목회 노하우 소개

기쁨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중심을 차지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핵심적 본질에 기쁨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도 슬픔을 아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슬픔은 하나님의 분노와 같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그분의 일시적 반응이다. 이 세상이 바로 잡힐 때, 그 슬픔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기쁨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이다. 기쁨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이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순종의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신 후, 예수의 목표는 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요15:11) 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기쁨: 하나님의 근본적 성품이며 영원한 속성 거룩하고 즐겁고 활기차게... 믿음과 열심에는 피곤과 짜증 없어

기쁨은 힘이다. 그러므로 기쁨이 없으면 약해진다

C. S. 루이스는 "기쁨은 하늘나라의 중대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사도 바울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4:4)고 말했다. 성경 말씀에서 기쁨은 선택불가의 사항이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이다.

달라스 윌라드 역시 이렇게 말했다. "깊이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 결과로 좌악한 행동이 좋아 보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혹의 힘은 커진다...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산다면, 시험을 이기기보다 더 쉬울 것이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나 사회생활에 관계된 즐거움을 '영적이진 않다'고 배제하는 것은 옳은 일을 행하려는 우리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좋아 보이지 않도록 삶을 계획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연습하라

기뻐하는 것은 배워야 하는 기술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시간에는 보통 즐거움을 불러일으키는 활동들을 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갖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었다. 영적인 축하의 시간에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멋진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휴련"을 즐거운 일들을 금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즐거워할 시간을 마련하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다.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은 다른 번역에서 '고급 음식'을 먹는 것으로 표현되는데, 그것은 금식과 같은 일종의 훈련이었다. 우리는 선지자가 메뚜기나 채소만을 먹으라고 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여기서 보듯이 느헤미야는 가장 좋아하는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다. 그것은 오늘 날에도 마찬가지다(느8:10).

(4면으로 계속)



2면

이주인 통제 바탕 한 이민정책 바람직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9면

리처드 포스터와 레노라... 조진모 목사(필라델피아연합장로교회)



16면

볼티모어교회 이영섭 목사 성역50주년 기념 및 원로목사...

2011년 한인교회 최초로 "미국 장로교(PCUSA)사회봉사상"을 수상하고, 2012년 공동체 시리즈(리더십은 이렇게, 양육은 이렇게, 사회선교는 이렇게)를 출간하여 한인 이민 목회의 로드맵을 제시하며, 2014년 "디아스포라 사회선교 센터(Diaspora Social Mission Center)를 봉헌하는 주 예수 교회가 "선교적 교회 세미나(Missional Church Semina)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제1회 선교적교회 세미나

선교적 교회 건강한 교회

※주제강의※

강의1: 선교적 교회론의 실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actice of Missional Church)

최형근 교수

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Heart Stream 한국센터(선교사 멤버케어센터) 공동대표
국제로잔위원회 동아시아 총무역임(2004-2011)
현, 국제로잔위원회 신학위원회계복음주의연맹 선교위원회 Associate

강의2: 선교적 교회와 지구촌 선교
(Missional Church and Global Mission)

김종국 선교사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 30년
인도네시아 장로교 신학대학 학장
한인세계선교사협의회(KWWMF) 공동의장

강의3: 선교적 교회와 디아스포라 목회 실제
(Missional Church and Diaspora Ministry)

배연찬 목사

주 예수 교회 담임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공동의장
미주기아대책(KAFH) 이사장

강의4: 선교적 교회의 공동체 사명
(Congregational Life of Missional Church)

노승환 장로

주 예수 교회 장로
심장내과 의사
단기 및 전문인 선교사역

※현장방문※

지역사회선교 견학 및 참여
(Practicum)

노숙자 숙박사역 (Caritas / 교육관)
노숙자 식사사역 (Monroe Park / 공원)
빈민촌 주택보수 (Renew Crew / 리치몬드 시)
산골빈민촌 사역 (Appalachia Service Project - 영상)
인종화합 합창제 (Intercultural Music Festival - 영상)
한국음식문화축제 (Korean Food Festival - 영상)

일 자 : 2014년 6월 12일(목) 오후 3시 - 14일(토) 오후 3시
장 소 : 주 예수 교회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숙 박 : Sheraton Richmond Park South Hotel
등록인원 : 30명
등록비 : \$100 (교재 포함 및 숙박), 선교사(등록비면제)
등록처 : 주 예수 교회 전화 및 홈페이지 (www.ljkc.org)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resbyterian Church (USA)

주최 디아스포라 사회선교센터 (DSMC)
주관 주 예수 교회 (Lord Jesus Korean Church, PCUSA)
후원 한인 세계선교 협의회 (KWMC)

10201 Robious Road, Richmond, VA 23235 / (804)560-7500,7509 Fax(804)560-7514

시론

하나님 눈에 띄게!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사업을 하다보면 눈에 띄는 종업원이 있습니다. 눈여겨봤다가 매니저를 맡깁니다. 직장에서 눈에 띄는 직원이 있습니다. 눈여겨봤다가 승진을 시킵니다. 가르쳐보면 눈에 띄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봤다가 좋은 인재로 키웁니다. 이렇듯 하나님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눈여겨봤다가 복주시고 그 복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사용케 하십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도, 감옥에 갇혀도 항상 변치 않는 상복수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 눈에 띄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어 복의 근원의 후예답게 자기 가족을, 부족을, 민족을, 이웃을 구하게 되었습니다(창45:).

그러나 정반대로 하나님 눈에 "찍힌" 인물들도 있습니다. 사울은 아메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사울은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웁니다(삼상 15:12). 그러나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지 사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주제 파악이 안되면 찍힙니다.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사무엘 선지자는 세상에 없어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아무리 초조하고, 두렵고, 답답하고 길어 안보여도 그렇게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라는 자가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다는 말입니까?(삼상28:7-8) 사울은 하나님 눈에 확실하게 찍혔습니다. 하나님 눈에 찍히면 비참해집니다.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져 자살로 최후를 맞습니다(삼상31:4).

우리들도 살다보면 시험과 환란은 항상 닥칩니다. 나의 인생을 둘러싼 상황과 여건이 초조하고 두렵고 사방이 막혀있어 출구가 안보이는 위기를 당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눈에 "띄는"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눈에 "찍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와 연단하고 단련한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고 고난을 뚫고 나가 승리하는 성도가 하나님 눈에 띄입니다. 고난이 하나님 눈에 띄일 기회라 여기는 요셉과 같은 성도가 하나님 눈에 띄입니다. 그러나 이때 "나"라고 하는 자아와 나에게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주제파악 안되는 교만 그리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고 둘 사이를 왔다갔다하며 머뭇거리는 종교혼합주의자들, 사울과 같이 하나님 눈에 찍힙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에 띄긴 띄되 요셉처럼 축복의 대상으로 띄어야 합니다. 하나님 눈에 띄긴 띄되 사울처럼 심판과 저주의 대상으로 찍혀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눈에 띄을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에 목숨 거는, 예배에 올인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십니다(요4:23). 이런 예배자가 하나님 눈에 띄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교회를, 말씀을 섬기는 성도(롬12:11)들이 하나님 눈에 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눈에 띄는 그 한사람 그 예배자! 그 헌신자가 그 자녀들을, 가정들, 교회들, 세상을 살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눈에 띄는 그 10명(창18:32-33)이 없어 심판받았습니다(창18:). 그 10명은 그냥 10명이 아니라 전체를 살리는 그 10명이었습니다(창18:26).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골로 태풍을 만납니다. 그 배에 탄 276명은 다 죽게 되어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 바울이 가이사에게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다 살리라(행27:23-25)고 전하십니다. 바울 1명은 그냥 1명이 아닙니다. 배에 탄 나머지 275명을 살린 그 1명입니다. 이와 같이 가정에도 전체를 살리는 그 1명, 교회에도 전체를 살리는 그 1명이 있습니다. 그 1명이 그 가정, 교회에 "신앙 가장, 영적 가장"입니다. 그 1명 때문에 가정, 교회가 삽니다. 그 1명 때문에 가정에 치료와 소생의 역사가 있고, 그 1명 때문에 교회에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창19:12). 하나님 눈에 뜨인 요셉은 생명을 구하는 역사로 그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써내려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이어져왔지만, 하나님 눈에 찍힌 사울은 스스로 자결하는 인생으로 마지막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2014년도에는 바로 내가, 나하나 만큼은 하나님 눈에 띄어 나로 인하여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이 사는 역사를 써내려가리라!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유산으로 계속 이어져가, 가면 갈수록 좋아지고 나아가는 크리스천의 위대한 가문을 이루는 그 출발점이 바로 내가 되리라! 다짐하며 나가는 복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은 믿음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는 신앙 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그리할 때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시간, 물질, 재능 등등 "이 모든 것을 더 하여주시는"(마6:33) 축복입니다.

이주민 통제 바탕 한 이민정책 바람직

이코노미스트, "엑소더스"로 얻어지는 지구촌 유익 밝혀

세계적인 경제학자 폴 콜리어(Paul Collier)는 그의 신간 ("Exodus: How Migration is Changing Our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에서 세계의 이주민 상황을 '엑소더스'(Exodus)로 묘사하며, 이 '엑소더스' 현상이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지는 콜리어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주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잘못된 것이며, 어느 정도의 이주민 유입이 국가와 사회에 유익을 끼칠 것이며, 누가

그 유익의 수혜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바른 논쟁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콜리어는 자신의 책에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이주민과 이주민의 출신국 그리고 이주민을 받는 국가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답하려고 노력했다(Movements of the people: THE author of "Exodus" explains why debates about immigration should really be about estimating the value, and limits, of diversity in society)

이주는 이주민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사람들은 이주를 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주를 떠나는 이들은 먼저 부유한 나라의 수준에 해당하는 수입을 얻게 되는데, 이는 보통 모국보다 10배 이상이 많다. 이렇게 많은 수입을 얻게 되는 이주민들의 생산성은 모국에 있을 때보다 이주한 국가에서 상당히 높지만, 그 이유는 그들의 모국의 사회가역기능적(dysfunctional)이기 때문이라고 콜리어는 설명했다.

이러한 콜리어의 분석은 아주 중요하다. 몇몇 산유 부국을 제

다는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노동 시장의 틈새를 메꿔왔다. 새로운 생각을 가진 세 엘리트들이 부유한 나라들의 회사에

보낸 가난한 나라들에게도 시선을 집중했다.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면 남아 있는 사람들의 형편도 나아질 것이라는

오히려 더 나빠지게 된다. 중국, 인도, 브라질과 같은 인구가 많은 신흥 경제 발전 국가들은 자국민의 해외 이주로 인해 유익

을 얻지만, 인구 규모가 작고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그렇지 못했다. 중남미 섬나라 아이티(Haiti)에서는 교육 받은 이들의 85%가 해외로 떠났다. 과거의 이주 물결이



대규모 이민자 유입은 부유국 문화적 유대 위협...다양성이 불투명 정체성 초래

인구 많은 신흥경제발전국은 유익하나 인구 적고 가난한 나라는 손실입어

외하면, 부유한 나라들은 잘 조직된 사회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부유하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 사회 조직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이지리아의 공장 근로자들은 그들이 뉴질랜드에서 일할 때보다 더 적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그 이유는 나이지리아 사회가 역기능적 사회이기 때문이다. 즉 나이지리아에서는 전력이 자주 끊기고, 부품이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으며, 공장 관리자들이 뇌물을 원하는 공무원들을 상대하느라 바쁘다는 것이다. 부유한 나라가 이주민을 받아들일 때는 그 나라의 훌륭한 관리제도와 법질서에 따른 혜택이 이주민들에게도 미치는 것이다.

이주민을 받아들인 나라들이 과거에는 이주민들에 의한 혜택을 보았지만 앞으로는 이주민들의 유입을 통제하지 않으면 도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콜리어는 경고했다. 현재까지 이주민들은 이주한 나라의 원래 주민들이 해오던 일을 대치하기보

들어오면서 생산성은 높아졌고, 이는 부유한 나라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낮은 기술수준을 가진 원래 주민들의 수입은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런 이들의 수는 아주 적었다.

그러나 대규모 이민자들의 유입은 부유한 나라의 문화적 유대에 위협으로 다가왔다. 다양성이 불투명한 정체성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큰 규모의 이민자들은 그들 모국의 역기능적인 문화적 규범을 버리지 않는 것을 넘어 새로운 국가에 그 규범을 전파했다. 한 사회가 너무 많은 다양성을 가질 때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복지를 위한 지출을 꺼릴 수 있다. 세금을 내는 자들이 세금에 의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부의 재분배에 대한 지지는 감소할 것이다. 콜리어는 이주민들을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즉 해외로 나간 자들이 그들의 기술과 노동을 대가로 모국 사회는 송금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연마하거나 공부에 매진하도록 만들었고 해외로 가지 못한 자들 중에도 훌륭한 두뇌와 기술을 가진 자들이 있어 자국의 사회와 경제에 유익이 됐다. 하지만 너무 많은 고급 두뇌들이 해외로 유출되면 자국의 경제는

이주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콜리어는 주장했다. 자국민들이 많이 정착한 지역으로 이주를 가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곳에서는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국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친구나 친척들에게 일자리를 찾아봐 달라고 부탁할 수 있다. 많은 서양 국가들이 친척의 이민을 허용해 왔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 편집국장: 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 (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 (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2014년 봄학기 신입생에게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강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미국 2013년 부작용, 불일치, 불신의 해”

바나리서치, ‘2014 3대 신앙적 문화적 경향 설문조사 결과 밝혀

(1면에서 계속)

따라서 폭력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와 같은 제도권에 대한 불신은 반대로, 미국이 전쟁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까이 도울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 질문에 26%의 성인들만이 애국적인 마음으로 돕겠다고 응답할 정도로, 미국인들은 ‘폭력의 순환’에 진저리치고 있을 정도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은 미국인들은 폭력이 점점 미화되고 안정돼지는 미국 문화 흐름에서 자신들이 점점 더 순응되고 있다고 고백한다. 따라서 폭력적인 비디오 게임, 영화 그리고 폭력적인 언어들이 준비한 음악을 즐기는 것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나 59%의 크리스천들은 이를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

결국 폭력의 문화는 이제 가정 즉 부모들이 감당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문제로 접어들고 있다. 거의

3. 공립학교 제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권에 대한 미국



있기 때문이다.

먼저 부모들은 갈수록 공립학교 제도가 낙후되거나 뒤쳐진다고 여긴다. 46%의 부모들은 지난 5년 전에 비해 공립학교가 나빠지고

그러나 긍정적으로 공립학교를 개선해보자는 의견들도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인들 중 66%는 “교회들이나 신앙단체들이 반드시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들을 후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목회자들 중 95%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립학교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으며, 크리스천 중 85% 역시 이 점에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후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대답은 다양하다. 16% 정도의 크리스천만이 “착은 기도와 신앙적인 가치들”이 학교에 도입되는 것이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말하고 있고, 교사들을 후원하는 것(36%), 대안교육 선택을 늘리자(25%) 그리고 학문적 개혁을 위해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부모들의 자원봉사(24%) 등등이 후원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다.

바나리서치의 이번 설문은

원로칼럼



박준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돌을 든 사람들

법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적용과 운영의 묘를 따라 적법이 될 수도 있고 악법이 될 수도 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성결과 행복을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그러나 그 법의 전수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낚아채는 율가미로 그 율법을 악용했다. 자신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함은 물론 법 정신 자체마저도 왜곡한 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기에 급급했다. 이러한 저들의 처사를 가리켜 주님은 “외식하는 자들”, “회칠한 무덤”, “하루살이는 걸러먹고 약대는 통째로 삼키려는 이율배반의 무리들”이라고 통박하셨다.

요한복음 8장의 사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발각된 어느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모세의 율법은 성(性) 윤리의 타락과 가정파괴의 비극을 방지하지 위하여 유부녀나 약혼녀의 혼외정사를 엄금하고 있다. 그리고 범법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그녀를 돌로 치기 위해 저마다 손에 돌을 든 채 성전에 계신 주님을 찾아왔다. 이유는 여인을 죽이려는 율가미로 함께 예수도 죽이기 위해서였다. 그들이 던진, “모세의 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선생이 생각은 어떻게?”라는 질문은 예수 자신이 외쳤고 강조했던 사랑의 교훈을 저버린 채 “돌로 치라”든지, 모세의 법을 어긴 채 “치지 말라”는 양극단의 대답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말없이 허리를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다. 제롬은 그 글씨의 내용에 관하여 돌을 들고 서 있던 남자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범죄, 이를 태면 남자들이 흔히 지을 수 있는 죄목을 낱말이 기록하셨을 것이라고 했다.

우리 여기서 주님의 기지와 통찰력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뿐인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하나씩 돌씩 청문회장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사실 앞에서 생각이 착잡해진다. 이유는 우리 시대는 돌을 들고 악쓰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저마다 손에손에 돌을 들고 가려던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

우리는 법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그 법은 나부터 지켜야 한다. 맑고 밝고 아름다운 정의로운 사회의 구현은 우리 모두의 꿈이며 이상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맑고 밝고,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 우리 역사의 비극은 피고석에 서려는 사람보다 재판장의 자리에 앉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하면 돌보가 들어있는 자신의 두 눈을 치켜 뜬 채 남더러 티를 빼라고 호통 치는 가면무도회가 그칠 줄 모르는 데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 겸손하게, 그리고 조용하게 움켜쥔 돌을 내려놓고 드러야 될 기도가 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이었습니다.”

동자의 신분을 주지만 복지혜택에 제한을 가하거나 받을 자격을 주지 말자고 폴리어는 제시했다.

결론으로, 책 제목에서 이주민의 유입을 다소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단어인 “엑소더스”로 묘사한 폴리어는 지금까지 통제되지 않은 이주민

의 유입을 허락한 나라는 없었으며, 또 무조건적인 이주민 유입이 적합한 현상도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주민에 대한 통제를 바탕으로 한 이민정책을 역설했다.

교회는 ‘하나님 찾기’ 영적 본질추구에 대한 제시해야 교내 총기사건, 안방 폭력물 난무는 부모가 감당할 문제 공립학교 후원으로 교사지원, 대안교육, 부모협조 등 제안

과반수를 넘거나 육박하는 폭력물이 담긴 비디오 시청(57%), 폭력성 영화(51%) 그리고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음악(47%)들이 가정 리빙룸이나 자녀들의 방에서 연일 목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들의 불신은 이제 미국의 미래를 만드는 학교에 대한 회의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등록시키고 있지만 갈수록 공립학교 선호도는 기울고

있다고 응답한다. 그리고 현재 80% 정도의 부모들이 마지못해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불과 26%의 부모들만이 공립학교가 제 1순위라는 점이다.

“FRAMES Project”이란 이름으로 지난 2013년 5월부터 8월까지 전화와 온라인 인터뷰로 미전역 4,495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신뢰도는 95%이고 오차율은 +/-3.1%다.

이주민 통제 바탕 한 이민정책 바람직

(2면에서 계속)

현지 문화에 동화되지 않는 이주민들이 증가하면서 이주민들이 현지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폴리어는 설명했다.

폴리어의 주장은 분명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 폴리어가 살고 있는 영국에는 인구의 90%가 백인이지만 최근 많은 이민자가 유입됐다.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 사람인 폴리어는 이주민들에 의한 과거의 현상보다는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더 집중했다. 하지만 그 전망이 마냥 어두운 것은 아니다. 영국이 이주민들에 의한 다양성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영국에서 가장 다양한 지역인 런던에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런던은 전체 주민의 절반 이하가 백인일 정도로 인종적으로 다양한 지역이면서 동시에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며, 백인들만 넘쳐나는 다른 지역보다 더 활력적인 곳이다.

미국은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이주민과 이주민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부유하고, 역동적이며, 평화롭고, 강력한 국가적 자긍심으로 뭉쳐 있다. 과거 미국으로 들어왔던 대규모 이주민들이 모두 주류 문화에 동화됐으며,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에 있었던 최근의 대규모 이주민 유입도 변명과 사회적 통합의 사례로 평가 받았다.

대규모 이주민 유입과 복지 사회 사이에는 분명히 갈등이 있다. 보 조금에 의지할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그 부를 오래 동안 유지 못할 것이다. 미국의 이주민들이 유럽의 이주민들보다 더 동화되는 길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유럽보다 덜 관대하다는 데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별칭한 신체를 가진 이주민들이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러한 사례가 현지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미국에서는 이주민들이 일을 해야 하며, 또 실제로 일을 했다. 일을

통해 미국의 이주민들은 사회에 통합되어 갔다.

유럽식 복지제도에 근거한 폴리어의 입장은 이민정책을 통해 이민자들로 인한 사회문제를 감소시키되 이민 자체는 막지 말자는 것이다. 즉 그는 이주민들이 사회에 동화되는 정도를 보며 이주민의 유입을 통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기술을 가진 이주민과 학생은 환영하지만 가족초청이민은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또한 전쟁에 의한 정치적 망명자는 받아들이지만 전쟁이 그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다. 이러한 본국 송환이 망명자의 고국에 유익하다고 폴리어는 주장했다. 그리고 불법체류 이주민들에게는 세금을 내는 합법적 노

YWAM DTS / Dominican Republic
2014 COMMUNITY DEVELOPMENT DTS

CD DTS

세상은 크리스찬을 볼때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고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CD DTS는 성경 교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3개월의 강의와 2개월의 아웃리치를 통하여 함께 공동체로 살며 주님의 삶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특별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경험하는 DTS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DTS 목적

- Gather & Challenge (모으고, 도전하게 하는것)
- Inspire & Develop (고취하고 개발하게 하는것)
- Shapen (연마 시키는 것)
- Prepare (준비 시키는 것)
- Impart (전하는 것)

훈련 기간

강 의: 2014년 4월3일~6월26일
전도여행: 6월27일~8월21일

신청 및 연락처

www.uofnvillamella.com
Lecture Fee : \$2,500(USD) room/board (Dominican, Haitian Student) \$1,000
Outreach Fee: \$1,000+Airfare

YWAM CD DTS
1516 Betancourt St. Bella Visa, Santo Domingo, D.R.
TEL: 213-247-9116
E-mail: davidpark1781@gmail.com / evergracekim@gmail.com
연락: 허승호 선교사 / 박 남수 장로

목회칼럼

손원배 목사
(임마누엘장로교회)



교회여!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하라!

미국 내시빌, 테네시에 사는 크리스천 작가 Shane Raynor은 십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는 "Teens don't show up because

they don't think God is showing up"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피자 파티를 하고 좋은 체육 시설과 오

락을 제공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인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가 교회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32살 여성 작가 Rachel Held Evans도 자신의 CNN 블로그에 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20세 전후의 밀레니엄 세대(Millennials)를 교회에 끌어들이려면 최신 음악, 캐주얼한 예배, 커피를 제공하는 카페, 블루진을 입은 목사, 세련된 웹사이트 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엉터리 통념에 불과합니다. 젊은이들은 교회가 쿨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에서 예수

님을 발견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We're not leaving the church because we don't find the cool factor there; we're leaving the church because we don't find Jesus there).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유일한 단체입니다(행 1:8).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 할 수 있는 곳은 온 세상에서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철학과 종교도 줄 수 없는 것, 오직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교회가 외면하고, 오히려 세상 것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데 어리석은 일입니다. 좋은 교육 프로그램도 좋고 최신

음향시설도 좋지만,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책,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의 어떤 쾌락, 어떤 유혹, 어떤 우상숭배, 어떤 죄악의 물결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신학자나 철학자들의 말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교훈이나 사회 윤리도 아닙니다. 지식을 주고 감동을 줄 수는 있겠지만, 영혼을 구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는 오직 기도와

십자가의 복음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행26:18).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기독교의 본질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고후5:17).

어설픔게 세상을 흥내 내지 맙시다.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것으로 승부합시다. 승리할 것입니다. 잃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의 세대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푸 / 른 / 초 / 장

지윤성 목사
(안디옥 장로 교회)



2014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한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땅에서 잘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보아 주시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울 한해 나를 복주시기 원하시면 나는 잘 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나를 존중히 여겨주길 원한다면 그것은 무언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사랑하

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가장 핵심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시간마다 잘 참석하시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올 한해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른 예배로 은혜 받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 받는 축복의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바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몰 보듯이 부여하시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2014년도를 예배를 통해

구분하여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도는 주일을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일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하면 결국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요, 영적으로 힘을 잃게 되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결국 범사가 형통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가 될 때 성령이 함께 하고 이 예배가 은혜가 되는 것이다.

셋째, 예배 시간에는 오직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한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복잡한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전폭적으로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에 폭 빠져야 합니다. 나는 예배자가 아닌 것처럼 예배시간에 분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서 순서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동참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예배에 폭 빠져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는 자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살아야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내 가정이 살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면 내 일터가 살아납니다. 내 영혼이 살면 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범사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

(사무엘상 2장 30절)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바라는 것이나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

지 않는 사람,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존귀하여 대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헌금으로도 우리의 삶속에 나타내셔야 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한 성도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그 모습과 자세에 따라서 어떤 이는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이는 화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인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예배의 실패는 바로 인생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복을 받기 삶을 살기 위하

여 축복을 받는 한해를 만들어 가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 바른 예배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날(주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출21:11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주일을 귀하고 거룩하게 여기고,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를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먼저 몸과 마음을 미리 준비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토요일 저녁에는 미리 헌금과 주일날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또 주일 아침에는 기쁨으로 미리 교회에 나와야 한다. 우리 모두 준비된 예배자

<1면에서 계속>
지금 시작하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시118:2). 시편 기자는 "어제는 여호와의 날이었다. 그때 나는 얼마나 행복했는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내일은 멋진 날일 거야. 그때

까지 참고 기다려야지"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날은 틀림없고 즐거운 날이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된 날이다. 만일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날은 바로 이날, 오늘이다. 만일 우리가 오늘 기뻐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하지 못할 것이다. 만일 완전한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기다려서 기뻐하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가 기뻐하려고 한다면, 이날에 기뻐해야 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만드신 날이다. 이날은 틀림없고 즐거운 날이다.

기쁨의 멘토를 찾으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전하고 다니는 몇몇 사람 정도는 알 것이다. 그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생기를 얻는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감사하라. 무엇보다도 일부러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을 계획해야 한다.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하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제한해 그들이 우리의 심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는 생기를 불어넣고 기쁨을 주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사람에게 당신의 '기쁨을 전달할 멘토'가 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다.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찾아 당신의 손상된 기쁨을 회복하고 싶다고 말해본다. 그리고 성령께 당신의 삶이 더욱 풍성한 기쁨의 열매를 맺도록 함께 기도한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년 봄 학기 본교강의안내

Feb 10-14(2월 10일-14일)

DI 851 Biblical Teamwork in Missions(선교에서의 성경적 팀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Roger Peugh

DI855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Feb 17-21 (2월 17일-21일)

DI 802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2. 미국에서 유일한 선교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목회학 박사과정(D.Min.)
선교학 박사과정(D.Miss.)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졸업식 안내

일시: 2014년 5월 10일(토) 오전 9시
장소: 본교 Orthopaedic Capital Center

Online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Jan 6-Feb 28 (1월 6일-2월 28일)

• DI 801 Intentional Multicultural Ministry(고안된 다문화 사역)
For D.Mis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
Dr. Thomas Stallter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Bangkok, Thailand

• March 31-April 4 (3월 31일 -4월 4일)
IM 8300 Islam(이슬람)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odd Bradley

Korea

• April 7-11(4월 7일 - 11일)
DI8220 Clutures of the Old Testament(구약에서의 문화)
For D.Mis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
Dr. Tiberius Rata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한국교회에 대한 위기의식은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누구나 느끼는 알려진 사실이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급성장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위기의식이 가득하다. 위기의식은 있는데 한국교회의 병증이 심하고 원인이 다양해서 쉽게 치유책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아시아미래인재연구소의 최윤식 박사는 그의 저서 "2020 204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통해서 현재 상태로 가면 10년후 한국교회의 성도 수는 4백만 명 안팎으로 줄어든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교회의 잔치는 끝났다"라고 진단했다. 한국교회는 성장기를 지나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한국교회의 쇠퇴는 교육부서의 감소로 입증된다. 지난 10년 동안 주일학교 어린이부서가 38만 명에서 28

교 특히 불교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성인의 출석율도 중요하지만 주일학교의 감소는 위기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한국교회는 매해 주일학교 5만명을 위시해서 20만명이 줄고 있다. 그런데 주일학교 약화의 진정한 이유는 사회적 변화가 아니라 교회와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투자만 해야 하는 어린이 선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지 못해 왔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의 진행으로, 실제적인 영성훈련과 신앙의 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

이런 위기를 특성화 교육으로 돌파구 찾는 교회들이 있다. 꽃동산

도 공부하면서 사역하려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 설사 교육을 담당하는 교역자가 온다고 해도 짧은 기간 안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교회를 떠난다. 자주 바뀌는 교육전도 사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 닫게 만든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많이 갖춘 큰 교회로 수평이동한다. 큰 교회는 더욱 더 커지지만 작은 교회는 더욱 더 작아진다. 작은 교회는 고난의 악순환을 반복한다. 이것은 또한 전체적으로 교회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가? 우리 다음세대에 한인교회가 있을까? 전문가들의 눈에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대답이 될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믿는다. 이것은 현실을 보고 하는 대답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 보면서 드리는 간구이고 간절한 소망이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어야 한다. 다음세대에도 한인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한인들을 위한 것이고 또한 세계교회를 위한 길이다. 건강한 이민교회가 세계교회에 미치는 충격과 좋은 영향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의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뼈를 짚는 희생과 노력

에 영어사역을 전담하여 마음껏 감당할 2세 목회자가 설 자리가 많지 않다. 이것은 혼자 극복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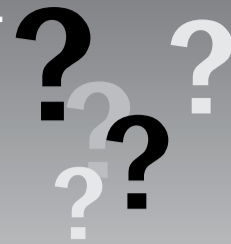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의 자세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 온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사역을 시작하는 차세대 사역자들이 마음에 차지 않을 수 있다. 부족함도 많이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그들의 기를 죽여서는 안된다. 대신 사랑으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포용해야 한다. 우리가 이들의 부족함을 부동시키고 떠나버려서 울려주어야 한다.

차세대 사역자로 훈련을 시작하는 이들은 갖 피어나는 싹들이다. 우물물에서 솟음을 요구하면 할 말을 잃게 된다. 적극적으로 이들의 부족함은 일세대인 우리가 매꾸어주어야 한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키워야 한다. 그렇기 않으면 다른 이민교회처럼 이민 1세대는 교회가 왕성하지만 차세대는 쇠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모세의 시대는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자만은 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나성서부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요즘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요? 베드로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구인지요?
-하버시터에서 이희은

A: 예수님의 열 두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형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사실 처음에 세례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요단강에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세례요한의 설교에 매료돼 세례요한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 선생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메시야인 것을 증거를 2번에 걸쳐서 하자 그는 예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찾아보기 위해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었습니다. 주님과 하루 밤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예수님을

먼저 부르심 받은 안드레가 대전도사 베드로 전도

시야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루 밤 대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드레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야인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으나 메시야를 만나고 나서 너무 가슴이 벅차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형 시몬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메시야를 만났어" 그리고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인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에게 간증 식으로 전한 사람입니다. 전도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의 삶을 변화시킨 이 좋은 예수님을 남에게 전하면 됩니다. 둘째, 전도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가장 가까운 형제인 시몬을 먼저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셋째, 그는 조용히 다리(bridge)놓는 역할을 잘한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 더 큰 일을 할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후에 자기 형 시몬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3000명, 5000명을 전도하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만 사람은 크게 내세워 만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형 베드로처럼 설교의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탁월한 리더십이나 은사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5000명을 구원할 베드로란 인물을 전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한 마리를 낚아도 대어를 낚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큰 재간과 능력은 없어도 조용히 다리역할을 잘 한 것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조용히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다리역할, 안내자 역할을 잘했습니다.

CCC의 창설자였었던 빌 브라이트 박사, 수많은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훈련시킨 이 빌 브라이트를 통해 수백명의 대학생들과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렇듯 이 빌을 전도한 사람은 이웃집의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청년, 내가 다니는 교회 한 번 같이 가보지 않겠나?"하고 청년 빌 브라이트를 교회로 인도해 결국은 큰 인물이 되게 했습니다.

한국의 초대 교회사에 김선주 목사가 있습니다. 이 분은 1907년 성령부흥운동을 불을 붙인 사람이고 한국 초대교회의 지도자요 부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인줄 압니까? 김중섭이란 29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이 분은 제 어머니의 할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외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초대교회의 큰 인물이 될 사람을 안드레처럼 주님께로 인도한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인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다리역할을 하여야 합니다. 안드레처럼 큰 재간이나 능력은 없어도 됩니다.

이민 교회의 미래가 있는가?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자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만 명으로 줄었다. 교육부서의 감소는 한국교회 전체 숫자의 감소를 의미한다.

한국교회에 대한 부정적 전망은 교단과 신학적 입장을 초월하여 표현된다. "시민 K, 교회를 나가다"를 펴낸 민중신학자 김진호 목사는 한국교회가 대수술이 필요한 중환자로 진단한다. 그는 대형교회의 목회자세습, 면세, 교회매매 등으로 인해 한국교회는 보수 세력의 부정과 부패가 응축된 곳으로 변해 교인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커녕 교인임을 감출 정도로 부끄러움과 혐오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중병을 앓는 이유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성과, 대형교회로 대표되는 성장지상주의, 극우반공, 친미성향, 변영신학 때문이라고 꼽았다. 물론 그의 진단과 처방을 그대로 다 동의하지는 않는다. 수긍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다.

서강대의 강영안 교수는 그의 저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에서 한국교회와 사회의 격정을 들을 정도로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버려 거듭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고 진단했다. 한국교회는 교회 몸집 키우기에 급급하는 성장주의의 위상에 발목이 잡혀있었다. 이 때문에 '개독교'로 표현되는 반기독교 정서가 사회에 만연해있고, 교인들의 배타성으로 인해 다른 종

교회는 어린이 특기교육을, 시화 임마누엘교회는 신앙이벤트 프로그램을, 인천 한신교회는 주일학교 어린이교육 전문가들을 적체적소에 배치하고, 특성화교육을 통해 교회성장도의 계기를 가져왔다. 이런 교회들은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다. 하지만 이렇게 주일학교의 생명력을 갖추고 있는 교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또 작은 교회들이 따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교회도 어렵지만 한국을 떠나서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민교회 디아스포라교회의 현실은 더욱 더 어렵다. 대부분의 이민 교회들은 성장이 아니라 생존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작은 교회가 대다수다보니 어려운 이민교회는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민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문제는 몇 교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교회들에 있어서 제대로 가르칠 교사들이 많지 않다.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맡아서 가르칠 수 있는 언어능력을 갖춘 교역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대부분의 이민 교회들은 교육 담당전도사를 구하지 못하고 싶어 구하기 어렵다. 미국 전역에 걸쳐서 한인 신학생들이 많이 감소했다. 신학생들도 목회에 대한 비전보다는 다른 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신학생들

이 필요하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는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차세대를 위한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다. 풀러신학교의 김세운 박사는 현재 이민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진단을 한다. 이민교회의 양적성장도 정체된 것 같고, 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왜곡된 복음, 기독교 윤리의 부재, 갈등과 분열의 문제 등이 도리어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젊은 영어권 목회자들과의 대화 해 보면 젊은 사역자들의 이탈이 크게 우려된다고 한다. 미국내 거의 전반적인 신학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전체 한인 신학생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특히 영어권 학생들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또한 신학교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던 상당수가 목회현장을 떠나 다른 직업을 찾는다. 큰 문제는 이들에게 주어진 벽이 너무도 비겁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민 1세대 함께 사역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2세 중심의 교회를 하기도 어렵다. 그들이 본받을만한 2세 목회자의 성공사례도 찾기 어렵다고 느낀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1세 지도자는 더욱 더 만나기 어렵다. 목회를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도 크다. 교육전도사를 찾는 데는 많지만 졸업 후

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여호수아 세대를 길렀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이고 성숙한 신앙인이었다. 그는 자신이 승리하는 사역을 감당할 뿐 아니라 차세대를 세우는 승리하는 지도자이었다.

차세대는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40년동안 곁에 두었다. 항상 같이 했다. 성공도 보여주고 실패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사명이 다할 때에 그 바톤을 옆에서 자기가 훈련시킨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었다.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은 물론 자신이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지만 자기를 훈련시킨 모세의 사랑과 돌봄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세대에서는 승리했지만 다음 세대를 놓쳐버렸다. 여호수아가 가지지 못했던 것은 차세대를 세우는 모세의 비전이었다.

우리에게 미래가 있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차세대를 위한 인내, 사랑, 섬김이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교회 건축을 하는 것도 귀하지만 다음세대가 그 아름다운 교회에서 마음껏 사역하고 뛰놀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것은 더욱 더 귀하다. 건물은 또 세우면 되지만 사람으로 오랜 세월을 통해서만 길러지기 때문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재건남가주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재건남가주장로교회는 36년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재건교단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 가능하신 분
- 본 교단이 인정하는 신학대학,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로 목회 경력 5년 이상 이신 분
- 한국어, 영어 이중언어가 가능하신 분
- 3년 Term으로 사역 가능하신 분
- 합법적인 미국체류 신분을 가지신 분

제출서류

- 한글, 영문 이력서
-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첨부)
- 목회 비전 및 자신의 신앙고백서
- 최종경력 증명서와 목사안수 증명서
- 한국어 및 영어 설교 Tape or CD
- 추천서

제출처

The Revived Presbyterian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1732 S. Verne Ave. Hawaiian Gardens, CA 90716
수신: 청빙위원장

기타사항

1. 청빙에 관한 문의사항 email : brianle91@gmail.com
2. 제출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전화문의는 사절합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_____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_____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에리트리아의 나라(NARA)



3만 3천에 달하는 한 종족 그룹으로서 나라 종족은 에리트리아 남서부의 가시강 북쪽에 거주한다. 이들은 현재 흑인 종족이며 견장한 체격을 가졌으나 여타 연계 종족들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나라 종족은 수단 종족인 프레넬로트 종족에 속해 있으며 이들은 동쪽으로 이동해 에티오피아 남서부

로 이주해 이 지역의 아프리카에 농경을 소개한 사람들이다. 이전의 나라 종족은 수단 종족 중 하나로 노예사냥의 대상이 됐던 종족이었다. 나라어로 불리는 나라종족의 언어는 닐로-사하라 어군에 속한 동부수단어의 한 부류다. 나라어는 네 가지 주요 종족들 사이에, 심지어는 촌락 사이에도 무수한 방언들로 세분화되어서 종족간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티그레어(Tigre)를 사용한다. 나라 종족에 대한 고대의 기록이 남아있다. 4세기의 비문과 9세기경 한 아랍 여행자의 여행일지

에 나일 계곡의 알와(Alwa) 왕국의 점경지대에 나라 종족이 거주했음이 기록되었다.

삶의 모습

다수의 사람들이 직조, 무역, 사냥 또는 가축 사육 등으로 수입을 충당하고 있기는하나 나라종족의 경제는 농경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들의 주요 생산물은 수수류(보편적 주요 산물), 밀, 보리, 기장, 콩류, 채소류, 과일류, 참깨, 아마, 담배 그리고 카트(kat)로 알려진 흥분제 등이 있다.

숲속 부산물을 주위 밧줄과 바구니를 만드는 나무줄기나 결상을 만드는 나무를 얻는다. 남자들은 사냥, 가축 먹이기, 쪼 따기 등의 일을 하며 농장 일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 나누어 감당한다. 잉여 농산물과 직조 공예품들은 교역을 통해 향신료, 철제 도구들, 장신구

나 의류 등과 물물교환 한다.

나라족 남자들은 일부다처제를 따른다. 상당한 신부대를 지불하는데 신부대는 대체로 소나 다른 귀중품들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핵가족 또는 일부다처제로 이루어진 가족단위로 한 컴파운드에서 살며 컴파운드 내에서 아내들은 각각 독립된 움막집을 소유한다.

나라족 공동체는 조밀한 단일촌락이나 한 무리의 소규모 거류 집단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막대와 작은 가지를 엮은 위에 진흙을 덧붙여 만든 원형의 움막집에 살며 원뿔형의 초가지붕을 땅바닥까지 이어내려 움막집에 별칭효과를 더한다. 이들이 처소는 대체로 입구가 두 군데며 여인들은 대체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자유로운 편이며 예우를 받는다. 남자들은 토가와 흡사한 밝은 색상의 천 조각

으로 된 옷을 입는다. 또한 대부분의 남자들이 터반을 쓰며 담배를 피우고 카트라는 각성제를 씹는다. 이들은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심지어는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하기도 한다.

신앙

나라종족들은 19세기 후반에 강압적으로 개종해 대부분 무슬림들이다. 그러나 이들의 전통 종교적 요소들은 여전히 산재해 있으며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이슬람은 강제적 방법으로 이들에게 전파됐으므로 여러 측면에서 이들의 삶 속에 내면화하는데 실패했다.

대체로 모든 촌락에는 다른 가옥과 다른 형태의 모스크가 있으며, 다수의 촌락에는 이맘(Imam)이 있어 코란을 가르친다. 이들은 기도와 금식에 엄매이지 않으며 메카나 다른 성지순례를

떠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대단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면 코란에 기록된 무슬림 금기사항들을 알지 못하며, 아랍어를 아는 경우도 극히 드물다. 그러나 돼지고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이 도살한 동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꺼린다.

필요로 하는 것들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들은 거의 없으며 현재 단 하나의 선교단체만이 이들을 섬기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슬람 신앙에 대해 다른 그룹들만큼 독실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복음에 대해서는 더 많이 열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리트리아의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독교 사역자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LA 대형 산불에도 나무 심자가 살아남아

대형 산불이 휩쓸고 지나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남부 아주사(Azusa)산의 정상에서 3.6m 높이의 나무심자가(사진)가 아무런 손상 없이 발견됐다고 미국 기독교방송 CNB뉴스가 최근 보도했다.



이 사실은 프리랜서 사진작가 라일랜드 탈라모씨가 지난 21일 아주사산 정상을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진에는 대형산불로 민둥산이 된 산꼭대기에 흰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심자가만 우뚝이 서 있었다.

탈라모씨는 "흰색의 심자가에 햇빛이 반사돼 반짝 반짝 빛났다"면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그의 자녀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셨다"고 적었다. 진화에만 일주일일 넘게 걸린 이번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남부 일대의 산악지대 2000에이커 이상을 불태웠다.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고 주택 등 많은 건축물이 전소됐다.

미국 언론들은 대형 산불 속에서도 나무 심자가 아무런 손상 없이 발견된 것은 기적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온라인매체 블레이크스닷컴은 "아주사 경찰은 당초 심자가가 불에 타 사라졌다고 발표했지만, 심자가는 아무런 손상 없이 발견됐으며 이는 희망을 상징한다"고 전했다. 미국 네티즌들도 경이로움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아주사산 정상의 심자가는 2007년 세워졌다. 아주사는 근대 오순절운동의 기폭제가 된 1906년 아주사대부흥운동이 일어난 곳이다.

우크라이나 정교회사제들 시위현장 총구 앞에

우크라이나의 동방정교회 사제들이 반정부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무력진압을 막기 위해 심자가와 성경을 들고 수도 키예프의 시위현장 한 가운데로 나섰다. 미국 뉴욕데일리리와 영국 텔레그래프 등 주요 언론들은 최근 온라인 뉴스 등을 통해 이들의 모

습을 일제히 보도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장면은 한 젊은 사제가 총을 겨누는 진압경찰 바로 앞에서 심자가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이다.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그는 지난 22일(현지시간) 키예프 중심가에서 경찰에게 반정부 시위대를 향한 무차별 공격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사제의 용기 있는 행동은 3일 동안 이어진 대치를 잠시 중단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지난 21일 사제들이 시꺼먼 연기가 자욱한 시위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시국기도회를 드렸으며 시위대와 경찰 저지선 사이에서 사제들이 '인간미'를 만든 사진을 보도했다. 사제들이 경찰이 일렬로 서서 만든 방패 앞에 서서 정부의 무력 진압을 비판하거나 공포 열어붙은 길 위에 모여 폭력진압 저지를 위한 철야기도를 올리는 장면도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됐다.

뉴욕데일리뉴스는 "용감한 사제들이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막기 위해 시위대 최전방에 섰다"며 "강철과 같은 믿음이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한 사제는 영국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폭력을 멈추기 위해 이곳에 나왔다"면서 "이 거리가 바로 나의 교회"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정부의 유럽연합(EU) 협력협정 체결협상 중단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됐으며 경찰의 무력진압으로 현재까지 정부 집계로 3명, 시위대 집계로 6명이 숨졌다.

미 기독교인들 이스라엘과 거리 둔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새로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도 중립으로 돌아서고 있



다.

조지 W 부시 정권 당시 국무부에서 근무한 토드 데드리지는 대안적인 성지순례 여행을 주관하는 '텔로스그룹'이란 단체를 설립하고 매년 15팀을 이스라엘로 보낸다. 대부분 '열린 마음을 가진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현지에서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이들과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양측의 분쟁 피해자들을 만난다. 또 팔레스타인의 기독교 신학교인 베들레헨성경대학도 방문한다.

데드리지는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목적"이라고 인터넷 매체인 버즈피드에 말했다.

세계 최대의 국제 구호단체인 월드비전도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미국 월드비전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내부 행사에서 여러 차례 상영했다. 실제로 팔레스타인 어린이를 돕는 캠페인도 펼치고 있다.

보수적 기독교 대학인 리버티대학 출신 게이브 리온 목사는 중동 문제에 관한 콘퍼런스를 잇달아 개최하고 있다. 콘퍼런스에서는 현대의 이스라엘을 '이슬람이 판치는 중동에 존재하는 민주주의와 기독교 신앙의 보루'로 여기는 시각을 비판한다.

크리스채티니투데이에 이 같은 흐름을 전하면서 "미국 보수 기독교인들의 친이스라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유행했던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종말이 온다'거나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충돌이 성경이 예언한 아말겟이 될 것'이라는 믿음은 여전히 있다.

보수적 매체인 '카리스마 뉴스'는 "이스라엘에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선택한 하나님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기고문을 실기도 했다. 데드리지는 "분명한 사실은 팔레스타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고 신학교도 있다는 점"이라며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좀더 균형을 가지게 된다면 미국 정부의 중동정책도 좀 더 유연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 위독 상태

미국의 세계적 복음선교사 빌리 그레이엄(96·사진) 목사의 상태가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62) 빌리그레이엄전도협



회 회장은 지난 19일(현지시간) 자선단체 '사마리아의 지갑'의 행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순한 감기만 걸려도 치명적일만큼 아버지가 극도로 약해지셨다"고 말했다고 미국 방송 WBTV가 보도했다.

그레이엄 회장은 "내가 방에 들어온 것을 알아채긴 하지만 말은 전혀 하지 못했다"면서 "천국 가실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당부했다. 그는 "하나님께 아버지가 우리 곁에 좀 더 오래 있게 해 달라고 매일 기도한다. 그는 훌륭한 아버지이자 친구다. 일요일마다 아버지와 함께 먹는 점심은 정말 즐거웠다. 아버지가 우리 곁에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면서 아버지에 대한 애착함을 드러냈다.

토마스 선교사파송 교회 한국인이 담임

평양 대동강에서 순교한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1840-1866·사진) 선교사를 파송한 영국 하노버교회에 한국인 선교사인 유재원 목사(55)가 담임목사가 됐다. 영국 선교사로 활동 중인 유 목사로 25일 취임예배를 드리고 본격적인 목회에 나섰다. 교회 설립 370년 만에 첫 외국인 담임이자 토마스 선교사 순교 148년 만이다.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의 후예가 순교자를 배출한 모교회를 맡게 된 것이다.



하노버교회는 영국 웨일스 몬머스셔주 작은 마을인 플라노버에 위치한 교회로 토마스 선교사가 성장하고 파송을 받았다. 당시 교회의 담임은 토마스 선교사의 부친인 로버트 토마스(1810-1884) 목사였다. 그는 아들의 선교편지를 받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로 후원했다.

하노버교회는 1644년 설립돼 회중교회로 출발했다. 이후 영국개혁교단(URC)에 합류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국 교회의 쇠퇴로 1991년부터는 전임 목회자 없이 은퇴 목회자나 평신도 설교자들이 예배를 인도했다. 유 목사는 지난해 11월 교회의 청빙을 받아 그달 25일부터 사역해왔다.

유 목사에 따르면 하노버교회는 현재 매주 10-20명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교인 대부분이 60대 후반 노인들이다. 하지만 기도모임이나 성경공부 모임 등이 활발해 부흥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교인 중에는 북한 선교에 참여하는 부부도 있다고 유 목사는 전했다. 성도들은 유 목사가 담임이 되자 토마스 선교사가 뿌렸던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자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14년 6월 이전 졸업 예정인 분으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릇 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 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고시 일자: 2014년 5월 16일(금) ~ 19일(월)
2) 고시 장소: Toronto, Canad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1) 필기고시: (1)교회사 (2)조직신학 (3)미국장로교회사 (4)헌법 (이상 4과목)
2) 제출고시: (1)구약주해 (2)신약주해 (3)논문 (4)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고시 내용
(1) 구약 주해 - 레위기 21:1-9
(2) 신약 주해 - 누가복음 16:19-26
(3) 논문 제목 - 표절과 목회자의 양심에 대한 문제를 논하시오
(4) 설교 본문 - ① 신약 : 고린도전서 15:1-10
② 설교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③ 필기고시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분문을 중심으로 설교설기교사를 지음
(5) 제출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주해 및 논문은 아래 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 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 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 이메일 할 것.
1. Letter Size(8 1/2 x 11)용지를 사용 할 것.
2.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되,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 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3.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pages이내)
4. 논문과 주해는 논문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할 것
5.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4년 6월 이전 졸업 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2) 신학교 전 과정 성적 증명서 1부
3)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4) 소속 노회 목사 후보생 증명서 1부
5)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6) 명함판 사진 2장
7) 고시료: \$150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원고는 2014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4년 3월 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합격자 발표는 38회 총회기간(5월 20일-22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와 함께 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고시장은 고시부 서기 한세영 목사에게 5월 16일-20일까지 속소를 예약할 것
2) 고시 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 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Rev. Se Young Han) / Email : syhan91@hotmail.com
4313 Markham St. An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고시부 부장 : 허상회 목사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2)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3) 영어권 안내 : 김지영 목사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17)

정성구 박사 | 전 총신대총장, ICSK원장



화란 개혁교회(Gereformerd Kerk)가 설립되다

화란어로 Gereformeerde Kerk란 말은 그대로 직역하면 '재 개혁된 교회'란 의미이다. 즉 본래 개혁교회가 자유주의로 세속화되고 오염되었으므로, 다시 한 번 개혁해서 16세기 칼빈의 신학과 신앙으로 복원하고 본래의 교회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20여 년 동안 교회개혁에 생사를 건 전투를 했다. 비록 카이퍼와 그의 일행 75명이 국가교회에서 재명되기는 했지만 새로운 개혁교회를 만들기에 다소 시간이 필요했다. 그들은 정식 처분이 정당한 법 절차도 아닐뿐더러 전혀 양심에 거리가 먼 일도 아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국가교회 총회가 교회 건물을 물리적으로 지키려고 하니, 카이퍼 일행은 세든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잠정적으로 국가교회의 총회와는 유대를 끊었다. 카이퍼는 계속해서 헤라우트지나 스탠다드지를 통해서 국가교회 총회의 위선과 잘못을 논리적으로 파헤쳤고 그것을 다시 소책자로 출판했는데, 많은 동조자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카이퍼와 그의 동지자들이 국가교회를 떠나 개혁교회의 회복을 외치면서도 그것은 잠정적임을 내외에 천명했다. 즉 "우리는 역사적이고 개혁주의적인 화란교회를 만든다. 우리는 국가교회로부터 분리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교회나 새로운 교파가 아니다.

재 행해지고 있는 불법의 행위들에 의해서 애도하고 슬퍼한다"고 했다. 이렇게 카이퍼가 주도하는 교회개혁이 진행되자 국가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물론이고, 개혁을 추진하면서 따라온 사람들도 가부간에 결정을 내릴 시점에 왔다. 1887년 1월에 집회가 열렸다. 암

할 것을 토론했다.

카이퍼는 이 기간이 그에게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고 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다. 그 집회 이후에 200개의 교회가 십만 명의 전교인과 함께 국가교회를 떠나 카이퍼를 지지하기에 이르렀다. 해가 거듭할수록 카이퍼에게 쫓린 교회들이 많아졌다. 하지만 아직 교회개혁은 완성된 것도 아니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없었다. 카이퍼는 목사요 교의 신학자요 교회사가 이기에 개혁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카이퍼는 개혁운동이 정착되고 확실히 되기 위해서는 교회를 준비하는 교육이 시급했다.

난제들이 또 있었다. 이미 1834년에 개혁된 교회그룹이 있었는데, 그들은 카이퍼와 신앙노선은 같았지만 카이퍼 그룹과 연대하기는 어려웠다. 또한 즉각 교회에 소속되

는 일은 보통 있는 일이었다. 또 세입자들이 집세를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쪽에 속했다는 이유로 교회 소유의 집에서 쫓겨났다. 그뿐 아니라 힘없는 늙은 과부들 쫓아내고 문건과 기록을 찾으려고 가택수색을 했다. 말하자면 국가교회는 개혁이 두려웠고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었으므로, 이성을 잃고 비신사적으로 개혁주의자들을 박해했다.

국가교회는 막대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시장, 경찰서장, 군인을 동원해서 엄청난 부동산을 지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교회개혁 운동이 일어나자 먼저 직격탄을 맞은 것은 자유대학교였다. 7년 전인 1880년에 아브라함 카이퍼가 세운 자유대학교는 국가교회에 소속된 성도들로부터 많은 현금이 들어왔으나, 국가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유대학교에 대한 동정심이 사

의 논설은 왜곡되었고 카이퍼를 혐오스런 인물로 만화를 그렸다. 국가 교회는 국가의 것이므로 국가의 정책과 방향 그리고 정치와 맞물리면서 카이퍼를 매장 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카이퍼는 목사일 뿐 아니라 정치가요 언론인이기 때문에 국가교회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면 대결했다. 그는 반혁명당의 지도급 인사와 손을 잡고, 그가 속해 있는 헤라우트지와 스탠다드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는 카이퍼의 일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다. 심지어 카이퍼에게 물리적 폭력과 암살의 위험도 있었다. 협박편지도 무수히 많아서 가족과 친구들이 경찰의 보호를 받으라는 충고도 있었으나 거절했다. 또 실제로 카이퍼가 면직 당한 후에 경찰은 자신들의 결정에 따라 카이퍼에게 방탄복을 입은 경찰관이 보호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카이퍼의 참모들은 경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카이퍼는 이를 거절했고 경찰이 계속 제의를 했을 때 카이퍼는 대답하기를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했다.

1866년 카이퍼는 화란개혁교회를 탄생시켰다. 그는 진리의 최전방에서 전투를 직접 지휘한 작은 거인이자 장군이였다. 그의 진리를 위한 투쟁이 없었으면 오늘의 개혁교회는 없었는지도 모른다.

이메일: skc0727@yahoo.com
(다음호에 계속)

1866년 화란개혁교회 탄생까지 20여 년간 생사 건 전투 물리적 폭력과 암살 위험, 협박편지도 무수히 많이 받아

우리는 전체 교회가 1816년에 국가교회로의 명예를 벗어버리고, 우리와 함께 본래 화란개혁교회로 남아있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잠정적으로 국가교회의 조직을 떠나는 것이다. 우리는 교회 건물과 기타 재산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적대자의 보다 센 힘 때문에 이 권리가 잠시 자제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의 상태와 우리에게 현

스테르담에서 300명 다른 지역에서 1200명이 참가해서 예배와 강연 논문 발표와 토론이 있는 대규모 집회였다. 여기는 아브라함 카이퍼를 비롯한 자유대학교 교수들이 앞장섰다. 이 집회에서 1816년에 실시된 국가교회의 명예를 벗어 버리고 개혁교회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남아있는 자와 떠난 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어있다고 해도 개인적으로 개혁주의적 삶을 사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소극적인 인사들도 많았다. 이런 상황 중에 화란국가교회는 새로운 그룹 즉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려는 카이퍼 지지자들을 여러 방면으로 압박을 가하고 직접 간접으로 박해를 했다. 국가교회당국은 공공연히 시당국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개혁그룹이 쓰는 교회 건물을 빼앗

리고 재정후원을 끊었다. 또 국가 교회지도자들은 공공연히 방해하고 자유대학을 즉각 교회에서 추방한 꼴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자유대학교는 칼빈주의자들로 하여금 형제애로 단결하게 하는 끈이 되었다. 카이퍼가 이끄는 개혁교회에 대한 탄압은 모든 일간지와 주간지의 현대주의자들이었다. 거기에 실린 교권주의자들

칼럼 음악목회 (21)

회중찬송의 문제점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원소장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예배 외에는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여행 중에 주일을 끼고 있으면 여행지의 교회를 방문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대체로 다른 포맷의 예배흐름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음악사역자로 많은 교회를 섬기거나 20여년 그리고 목회하느라 지난 20여년을 섬기는 교회 예배 외에 다른 교회 예배를 참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교회사역을 은퇴하고 지금은 차세대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다음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문화선교의 일을 하고 있기에 그동안 가보

고 싶었던 교회들을 방문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한인교회도 방문하지만 비교적 미국교회들을 많이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들은 거의 예배흐름이 비슷하지만 미국교회들은 우리 한인교회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배의 요소들은 커다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배흐름과 특히 음악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되는 것은 회중찬송입니다. 먼저 우리 한인교회들의 회중찬송을 보면 남녀노소 누구나 찬송가 멜로디만 부릅니다. 남녀가 음악이 다르고 사람마다 음악이 다릅니다.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있고 찬송가에도 4성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국교회 성도들은 대체로 자기에게 맞는 음악에 따라 각 파트로 찬송을 부릅니다. 예배 중에 부르는 회중찬송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하모니가 있는 찬송,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만들어가는 것이 곧 성도간의 코이노니아가 아닐까요? 혹자는 미국인들은 우리와 문화적 수준이 다르고 음악적 소양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사실은 미국인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음악수업이 없습니다. 다만 중학교부터 선택과목으로 밴드나 오케스트라 그

리고 합창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음악수업이 있으며 기초적인 음악수업과 더불어 과외로 레슨을 받아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 트럼펫 트럼본 그리고 성악 등 많은 학생들이 음악에 체험을 갖고 자라왔습니다.

요즘은 드라마를 보면 연기자들이 직접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음악을 배울 수 있는 충분한 기회들을 가지고 자랐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요즘 아이들은 음악적으로 아주 발달되어 한국의 음악을 K팝이라고 부르고 세계적으로도 이제는 널리 알려질 정도로 한국인의 음악수준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여전히 음악적으로는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선별하여 뽑아놓은 찬양대는 특별한 훈련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로 찬양을 하지만 전체적인 회중 찬송은 여전히 멜로디 일색으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CCM입니다.

연제부터인가 한국에 있는 교회나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나 거의 예외 없이 예배에 CCM(Contemporary Church Music) 즉 현대교회음악이라는 가스펠송 혹은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을 인도하는 경배팀들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모니에 대한 이해와 경험은 물론 음악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경배팀 사역자들은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들은 기타나 드럼이나 신디사이저 등 자기 좋아하는 악기를 연습하다가 그것으로 찬양하고 싶다는 열정에서 시작된 구성원들이기에 더욱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아 예배음악에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리드하는 찬양인도자가 음악적인 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악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Blending과 Balance를 만들지 못해 비음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보컬그룹입니다. 하나같이 다 마이크는 가지고 찬송하고 있는데 증폭되는 소리

가 스피커를 타고 교회당 안을 크게 울리는데 그 소리들이 음정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 소리를 자기가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음치를 교정할 때, 큰 소리를 내게 해서 안 됩니다. 작은 소리로 자기 들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또한 발성적으로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물론 Blending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중에 스피커에서 제일 큰 Volume으로 나오는 소리가 리더의 소리인데 이렇게 각자의 소리가 섞이지도 않고 Balance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더 발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교육이나 음악 등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역들은 열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그들을 지도하고 지원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연락처: (714)699-0210

뜻이 짝진 배처럼 표류하는 혼란과 목마름의 시대
폐선의 절망 속에 상처받고 신음하는 현대인들
2014년 우리의 삶을 패배에서 승리로,
방황에서 꿈으로 변화시켜줄
사닥다리 예배자 야곱에 대한 전혀 새로운 메시지!

사닥다리 예배자

소강석

이 시대 대표적 감성 내러티브 설교자
소강석목사의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환상적인
야곱 서사의 결정판!

2014년을 사닥다리 예배자 야곱과 함께 시작하세요!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션 루터 킹 페어리드' 집행위원장이 수여하는 국제명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사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정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거룩한 전쟁
531면 / 18,000원



십자가를 제압하라
320면 / 12,000원



생명을 넘어 나뭇잎
539면 / 16,000원



스펙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173. 창조론의 기초(23) 생명체들의 상호 의존

세포의 부품들은 각각 서로의 존재이다. DNA의 정보는 DNA를 읽을 수 있는 단백질에 달려 있고 단백질의 종류는 DNA정보에 달려있다. 사람 신체의 각 기관들도 다른 기관의 도움에 생명이 걸려있다. 근육계는 순환계의 도움이 필요하고 순환계는 근육계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 골격계는 근육계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이런 식으로 각 계들은 다른 계를 위해 존재하고 각각은 다른 계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세포의 모든 부품들이 동시에

다. 그 대신 터마이트의 소화관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이 셀룰로스를 당으로 분해시켜주기 때문에 터마이트는 목재로부터 사용 가능한 영양소를 얻어 살아가고 있다. 반면에 터마이트의 소화관은 미생물들이 살기에 필요한 적당한 환경과 영양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터마이트와 아주 유사한 관계는 소의 위에서도 발견된다. 소가 풀을 먹으면 반추위에 있는 미생물들이 소가 소화할 수 없는 셀룰로스(cellulose)나 리그닌

준비하셨음에 틀림없다. 공생관계는 여러 식물에서도 발견된다. 대부분의 식물뿌리에는 미생물들이 붙어있는데 이들은 식물에 무기화합물과 미량원소들을 제공하고 대신에 식물이 광합성한 탄수화물을 공급받는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뿌리혹박테리아(leguminous bacteria)는 콩과 식물의 뿌리에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인데 공기 중의 질소를 암모니아로 바꾸어 콩과 식물에게 질소원을 공급한다. 반대로 콩과 식물은 이 박테리아에게 필요한 탄소원과 기타 영양소를 제공한다. 이런 능력을 가진 다른 박테리아들은 바다 속에도 존재하는데 산호초에 붙어 사는 박테리아들은 10mx10m의 면적에서 하루에 약1.8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질소를 고정한다고 한다. 곤충들과 식물들 간의 공생은 누구나 알고 있는 많은 예들 중에 하나다. 벌과 나비는 식물의 꽃에 앉아 꿀을 얻는 대신 꽃가루를 암술에 날라주어 식물이 씨앗을 맺고 더 많은 식물들이 자라도록 돕는다. 동물들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식물들은 이 기체를 사용해서 광합성을 한다. 이 식물들은 광합성 과정에서 당류들과 산소를 생산하는데 동물

그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재료들을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을 필요로 한다. 생명체들이나 사람이 만든 시스템들이나 필요한 구성원이 정상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시스템은 망가지고 만다. 그러므로 생명체들이 서로 의존적인 것은 기업체들이 저절로 존재한 것이 아닌 것처럼 디자인 된 것이지 저절로 순서대로 생겨난 것일 수 없다. 진화론은 이런 복잡하고 정밀한 개개의 시스템들이 저절로 만들어져 생명체를 이루고 생명체들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우연히 형성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생명체 각각의 시스템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도 과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각 시스템들이 서로 의존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인가?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주와 인류의 시작을 알고 그 창조자를 알았던 고대인들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와 손을 이룰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명체 각 시스템 저절로 만들진 것도 불가능 하지만 각 시스템들 서로 의존적 관계 갖게 된 것 더 어려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사람의 모든 계들도 동시에 존재해야한다. 그러므로 생명체의 존재를 설명하는데 점점 진화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처음부터 갖추어졌다는 창조만이 논리적인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한 개체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 간에도 발견된다. 공생이란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생물계에서는 그저 서로 돕는 관계뿐 아니라 없으면 안될 필수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터마이트의 소화관이나 소의 위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과 각각의 동물들은 서로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터마이트와 소에게는 필수적이다. 건물의 나무를 갉아먹어 골칫거리라고 생각되는 터마이트(termite, 흰개미)는 죽은 나무들이 분해되어 물질이 순환되는 과정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터마이트가 나무성분인 셀룰로스(cellulose)를 직접 분해시키지는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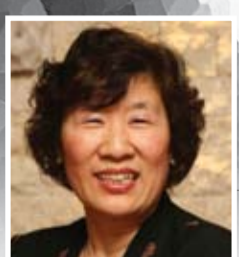
생명체들은 독립적이지 않다
꽃과 벌, 터마이트와 소화관의 미생물, 콩과 뿌리혹 박테리아, 탄소 호흡 등은 생태계가 시간과 물질을 초월한 창조주의 작동을 보여주고 있다.

(lignin), 펙틴(pectin) 등을 단당류로 바꾸거나 지방산으로 바꾸고 단백질들과 비타민 등을 생산한다. 소는 이렇게 소화된 영양소들을 흡수하여 성장하고 살이 찌게 된다. 소의 위는 이들 미생물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좋은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채소와 열매를, 동물들을 위해서는 푸른 풀을 음식으로 먹도록 창조하셨는데(창1:30), 동물들의 경우 풀만 먹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미생물들을 함께

줄처럼 서로 연결되어 서로 다른 도움과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자기 몫을 다하고 있다. 대기의 균형이 깨어지기 쉽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물처럼 엮여진 미생물들이 계속해서 메탄, 이산화탄소, 산소, 질소 등의 기체성분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다. 앞에 예를 든 것처럼 생명체들은 서로 의존적이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생존하려면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만든 많은 시스템들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존재하려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욥12:7-10). 또,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명체들의 상호 의존성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유일한 창조자의 단 6일간의 창조물이며(창1장) 시간을 초월하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히1:3).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다고 한다(롬1:20). 수백억 년의 진화를 통해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이 아니라 성경대로 행하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그 분이 보내주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의 선물을 주실 것이다(히11:6, 요17:3).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병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폭풍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읍,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느냐? 모든 자연의 법칙을 내가 주었느냐?(욥기 38). 어쨌든 자신의 논리로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 선악을 논합니다. 모든 자연의 이치나 모든 살아있는 동식물에게 스스로 살아가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존의 본능과 능력을 각 생물체에게 프로그램 하여 복으로 부여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저들이 잘 살아가도록 아주 조금 돌봐주는 정원사의역을 부여받았을 뿐입니다. 돌봐주는 대가로 그들에게서 삶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으며 사실은 그들 덕에 살아가는 의존적인 존재임에도 그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저들을 잘 돌봐주고 저들은 돌봄을 받고 서로 아끼고 공생하도록 허락된 상호공존공생의 관계입니다. 먹고 사는 기본 일이 해결되면 자신의 상황판단을 있고 하나님의 주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죽히 여기기보다는 소유물로 물건 취급하고 본연의 하나님이 명하신 돌봄의 섬김의 자리를 떠나 군림의 자리로 옮겨가고 점점 마음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잊어갑니다. 결국 바벨탑을 자신의 이름을 내기위해 쌓고 점점 교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삶이 윤택해지고 행복해지고 불편함이란 아무 것도 없는 환경으로 유포피아에 이를 때 주어진 최적인 환경을 감사하기보다는 좀 더 좀 더 외치는 우리의 욕망 줄 모르는 욕심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당연하고 감사를 모르는 이 불만의 교만은 도무지 꺼지지 않는 내면의 지옥불입니다. 바벨탑의 결과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서로 마음으로 보듬고 위하고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결국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불을 가지고 함께한들 서로 죽이고 죽고 자멸을 향해 어리석게 가는 마귀의 인간 패망의 작전을 손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적으로나 내면적으로 폭풍우를 맞아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대는 읍에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무지 나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더 내내면 될 일도 오히려 그릇 치는 게 어리석은 인간이 아니냐? 눈에 보기에 좋아야만 안경을 하는 너희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며 네 삶을 운영하고 있다. 네 인생의 주도권을 내게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라. 나를 신뢰하고 기다리라.” 안정된 심령으로 물 위를 걸어가는데 이 길이 쉬워져야하는데 조금만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도 조금만 내 생각과 다른 일이 생겨도 이리 저리 밀려다니고 중심을 놓치는 자신을 보며 앓드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욥23:10).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읍이 들은 책망어린 권면을 또 주님께 되풀이 하지 않게 중심을 주 안에 굳게 세워주소서,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절대로 믿고 주님의 인도에 잘 박자를 맞추도록 은혜를 부어주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미주오순절연합 총회교회가입 및 전도사임명 목사고시공고

2014년 본총회는 4차원영성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코저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을 목적으로 차세대목회자육성및선교와상호협력목회지원을 하는 총회입니다

1. 응시자격

- 1) 교회가입
현재 교회 또는 개척하고자 하는 교회
- 2) 전도사 인턴(후보자)
신학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남, 여 연령제한 없음)
- 3) 전도사 임명
신학대학(B.A., 신학대학원(M.A., M.Div.) 이수자 및 졸업(예정) 자
- 4) 목사안수
1. M.A., M.Div sms 전도사 임명 후 1년 이상 사역한 자
2. B.A sms 전도사 임명 후 2년 이상 사역한 자
(참고, 타 교단 신학대학 이수자는 본 총회에서 전도사 임명과 목사 안수 후 별도의 교리과목 이수자가 있습니다.)

2. 고시내용

- 1) 필기시험
① 구약성경 ② 신약성경 ③ 조직신학 ④ 교회사 ⑤ 헌법
- 2) 논문: 에베소서 6장 2절
- 3) 설교: 자율적으로 1편 제출(CD 또는 Tape로 30분 이내)
- 4) 면접: 당일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함

3. 제출서류

- 1) 고시 신청서 (소정양식)
- 2) 지방회장 추천서(소정양식)
- 3) 추천서 2인(소정양식)
- 4) 신앙명세서(소정양식)
- 5) 신학교 졸업 증명서(대학, 대학원)
- 6) 신학교 성적 증명서(대학, 대학원)
- 7) 신앙 및 소명 고백서
- 8) 사진 5매(여권사이즈 최근 3개월 이내 촬영된 것)

4. 제출기간

1) 제출기간: 2014년 2월 28일 까지

5. 기타

4차원 영성 글로벌 포럼 미주본부 정회원가입 가능함(총재 조용기 목사) 봉사과 사회 참여(영산 조용기 자선재단 연계한 사회구제 활동) 교제와 교류(정기모임 5 Net-work 형성 한국- 미국)

6. 문의

석종규 목사 (714)318-9521 / 최명상 목사(323)317-3749

리처드 포스터와 레노바레 운동의 정체성 이해 (4)

조진모 목사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



창세기는 초기 신앙공동체 안에서 대대로 구전(口傳)된 설화식 이야기로 시작한다. 모든 가족사가 다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전해들은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이 누구며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지 점차 알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반복하여 들으면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이 형성되었고, 신학적 의미와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이 시작에 관한 책을 만들기 위해 풍부한 구전에 비뚤던 여러 가지 상이한 문학적 자료들을 사용했다. 고대 예배공동체의 초기 의식에서 비롯됐음직한 유려한 찬송시들도 그 가운데 하나다. 고대 근동의 종교적인 설화와 신화에 병행하는 이야기들이 유일신 사상을 고취하려는 의도 하에 재구성되기도 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중요한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된 긴 사화(史話, saga)들도 있다. 예배 의식 이야기들은 특정한

러나 자유주의는 죄 많은 인간의 변화하는 정서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것이다." 분명 레노바레 성경은 인간의 경험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의 성경관에 기초하고 있다.

2) 역사관
포스터는 교회사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풀러신학교에서 상담학으로 목회학박사를 받고 졸업 영성신학을 가르쳤던 그는 역사학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교회 역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는 레노바레운동의 의의를 찾기 위하여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에서 교회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하였다. 우리는 그가 1998년에 출판한 "생수의 강"을 통해 그의 역사관을 접할 수 있다. "생수의 강"은 교회의 흐름을 6가지의 전통, 즉 목사의 전통, 성결의 전통, 카리스마의

다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제시하는 6가지의 전통은 이와 같은 역사관에 의하여 동일하게 해석된 것이다.

그런데 포스터는 6가지의 전통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를 본받고 닮아가는 삶(Christlikeness)을 귀중한 신앙의 모범으로 삼는 것이다. 그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덕을 쌓고, 성령에 충만하고, 넘치는 사랑을 실천하였던 많은 개인들과 단체들에 대한 교회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은, 삶의 모범을 제시하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느냐의 여부를 신앙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예수의 삶을 본받는 일을 신앙의 본질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교리적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교회사 흐름 소개하는 6가지 전통은 전통적 사관 부정 신비주의적 성향 지닌 가톨릭들을 주목할 인물로 소개

예배 장소들이 세워졌음을 설명하며 풍습과 장소, 명칭들의 유래를 말해준다. 족보들은 가족 구성원들을 세대별로 열거하여 큰 덩어리로 묶어 통일성 있는 구조로 나타낸다.

'레노바레성경'이 고등비평을 수용하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레노바레운동의 신학사상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이며, 우리의 신앙과 본분에 관한 유일한 법칙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에 입각한 신학, 성경대로 믿는 신앙,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생활에 대한 강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1920년대 미국장로교회의 신학논쟁의 핵심은 성경관이었다. 고등비평을 받아들인 자유주의자들은 모세의 5경 저작설을 부인하였다. 보수주의자들은 이에 맞서 하나님 말씀의 완전한 축자경감과 권위를 수호하려 하였다. 1930년대 한국장로교회에서 일어났던 김재준의 자유주의와 박형룡의 보수주의 사이의 신학논쟁의 핵심도 모세의 5경 저작설을 포함한 고등비평 수용의 여부에 따른 성경관의 차이 때문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이 읽고 있는 성경은 보수주의자들의 것과 다른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한 구프린스턴 신학자 그레셴 메이첸(J. Gresham Machen)은 "기독교와 자유주의"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자유주의가 기독교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은 조금도 기이한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토대가 서로 다른 까닭이다. 기독교는 성경의 토대 위에서 있으며 그 자유와 생활을 성경에 기초를 둔다. 그

전통, 사회정의의 전통, 복음의 전통, 성육신의 전통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여기에 열거된 전통들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포스터의 관심사는 제도화된 교회에 남긴 역사의 발자취가 아니다. 그 대신 '영적 삶의 강물'로 비유되는 비주류의 전통을 교회역사가 지닌 최고의 가치로 드러내려하고 있다. 이 강물의 물줄기들은 때로는 고립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로 모아 다시 힘차게 흐르도록 하신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고립은 역사적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몇 세기 동안 일부 귀중한 교훈이나 중요한 경험들이 무시되어왔으나 적절한 시기에 한 인물 또는 운동이 나타나 이런 소홀함을 바로잡곤 한다. 이들이 새로운 가르침의 영향을 받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존의 고정관념과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는 일에 대해 저항하게 되고, 새로운 운동을 저해하게 된다.

이런 현상이 몇 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되어 있어왔다. 그 결과 삶의 여러 가지 물줄기들-좋은 물줄기, 중요한 물줄기들-은 기독교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었다. 이 분리로 인해 우리들은 균형 잡힌 삶의 비전과 믿음을 상실했다. 하지만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그동안 서로 분리되었던 물줄기들을 모으고 계신다.

포스터는 대부분의 교회사가(教會史家)들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외면하는 역사적 사건들의 흐름을 "좋은 물줄기, 중요한 물줄기"라고 부르며 이들에 대한 긍정적인 조명을 시도하였다. 과거에 역사의 중심으로부터 고립되고 소외되었던 전통들이 이 시대에

포스터가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여 교회사를 서술하는 대신 나름대로 교회사의 흐름을 재편성하면서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신학전통이 지닌 특성을 아예 무시했다는 점이다. 그가 제시하는 6가지 전통 가운데 두 가지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먼저 '목사의 전통'의 흐름을 나타낸 도표에 포스터의 그의 넓은 역사관이 잘 드러나 있다. 그는 여기서 2000년 동안 교회사에 나타난 여섯 가지의 '중요한 운동'을 소개하였는데, 사막의 수도사와 수녀들, 베네딕트회 수도회, 성 클라라 수녀회, 공동생활 형제자매회, 모라비안 운동, 그리고 경건주의 운동 등이다. 또한 이곳에서 그는 여러 명의 '주목할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이집트의 안토니우스, 닛사의 그레고리, 노르위치의 홀리안, 십자가의 요한, 리시우의 테레사 등의 신비주의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세기의 인물들로 선정된 3인, 캐서린 휴에크 드 도허티, 토마스 머튼, 헨리 나우웬은 모두 신비주의적 성향을 지닌 가톨릭이다.

또한 '카리스마 전통'의 흐름을 나타낸 도표에서, 포스터는 '중요한 운동'을 몬타누스주의 운동, 그레고리안 전례 운동, 프란체스코 수도사들, 재세례파,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운동의 부흥, 그리고 현대 예배의식 각성을 꼽았다. 또한 '주목할 인물'로 몬타누스, 벵겐의 힐데가르트, 조지 폭스, 윌리엄 시모어, 오랄 로버츠, 그리고 존 윌버 등을 들었다. 이들도 모두 보수적인 신학의 전통에서 이탈한 개인과 단체들이다.

(다음호에 계속)



방지일 칼럼 (25) "본대로 들은 대로" 다 아버지 것

어느 것이 아버지의 것이 아닌 것이 있을까 다 그로 말미암아 존재한다. 그가 유형 무형의 것을 다 지으셨고 창조하시어 사람에게 다 주신 것이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1:3). 이 모습되어진 것은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 사람은 내 것 내 소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람은 올 때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은 없다. 옴의 말과 같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찌라"(욘1:21) 옛글에도 공수래공수거(公手來公手去)란 말도 다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즐거이 드리는 헌물이 있어 내 것으로 드린다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이라 어느 것이 내 것이 있는가, 내가 일해서 벌었다. 내가 농사하여 얻었다. 내가 땀 흘려 얻은 것 운하기 쉬우나 그리 곰곰이 까지 생각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일하는 것은 본분이라 일한사람 땀 흘려 일한 사람은 식물을 얻게 해주신다. 일하고 밥을 먹는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정하여주심이라 그러기에 공중 나는 새를 보라 하시는 기르신다고 새도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풀씨를 쪼아 먹는다. 벌레를 잡아 먹는다. 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풀씨다. 하나님께서 내신 벌레다. 하나님께서 아니주시면 먹을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러기에 오늘이나 내일 아무데 가서 장사하여 이를 얻겠다는 자기 설계를 사람이 하지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부르면(약4:13) 하신 말씀 또 어리석은 부자가 급근 크게 풍년이 들어 소출이 많다. 돌 때가 없으니 창고를 크게 짓고 그득히 채웠으니 내 영혼이 잘 먹자 혼자 흐뭇한 탄사를 읊은 어리석은 자가 있었다. 오늘 밤에 네 영을 부르시면 네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겠느냐 하신 말씀도 너무 모르는 자에게 주신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풍성히 헌납하였다. 드렸다. 다윗이 대표로 기도를 드렸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이다"(대사29:4) 주께 받은 것을 드렸다 함이라.

내 개인의 육식의 건강 내 육체의 모든 조직기관 그 신진대사의 작용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어느 것이 내 섭성으로 나는 이만한 건강이다. 내 조직 내 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 있을까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 될 뿐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육체를 주시고 그 복잡한 조직 다 각기 기능이 있어 움직이는 공장이다. 이보다 더 세밀한 자동식 공장은 없다. 다 자동식으로 조절이 되게 되어있다. 이 복잡한 조직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맥박을 스스로 짚어보아도 신통도 하다. 다 하나님이 주신 바이다. 이 현실을 내가 알게 되어있다. 그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 그의 기뻐하신 대로 살아 만족한 것이다.

어느 것이나 그에게서 받았고 또 그의 것으로 먹고 입고 살아간다. 그가 주시는 대로 내가 기뻐하고 있다. 숨쉬는 한 호흡도 그의 보호아래서이다. 숨이 막힌다. 호흡이 곤란하다. 내 몸의 이상으로 혹은 외계의 공기의 부조화로 산소부족으로 기압의 이상으로 그럴 수도 있다. 내 혈액이 혈관을 순환하여 기압이 맞기에 이렇게 무리로 혈액이 순환한다. 고지대로 가면 그랄지를 못하다. 코피가 쏟아진다. 숨이 가쁘다. 그런 경우를 당한다. 고지대에 적응되기까지는 저지대에 살던 사람이 어렵다. 이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내 몸에 적당하게 배치하여 주심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니 너무나 분명하건만 이를 망각하고 사는 때가 없지 않다. 인간으로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하여도 불평 혹은 원망은 있을 수 없음을이다.

언제나 감사에 넘쳐서 살아야 할 인간들이다. 이렇게 못사는 데서 같듯이 생기고 부조화가 생겨서 고통을 당한다. 생을 저주까지 한다. 신앙인으로서 이를 바로 통찰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 때 이 점을 바로 하게 됨이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부터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어느 것이 내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라 바치고 안 바치는 문제가 아니련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가 단 마음으로 진심으로 헌신하여 삶을 기쁘시게 받으심이니 이를 바로 인식하면 더더욱 감개무량할 뿐 헌신하는 흐름함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이런 삶을!

(1999년 2권)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 체코 이탈리아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바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 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1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2 교회(기관) 주소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5 사택 주소	
6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
8 Web Add.	http://
9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4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동부교계 기사판



자녀양육학교 개강

패밀리터치(대표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자녀양육학교가 2월 3일부터 3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8주에 걸쳐 뉴저지 사무실에서 열린다. "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정 원칙"을 교재로 저자 정정숙 박사가 직접 강의한다.

▲문의: (201)242-4422

2014 교사 강습회

뉴욕어린이전도협회(대표 최중대 목사)가 주최하는 2014 교사 강습회가 1일 단기 세미나와 8주 장기 세미나로 열린다. 일일 세미나는 2월 20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장소는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 등록비는 50달러(2월18일 이후 70 달러). 또 TCE 교사대학 1단계는 뉴욕 지역은 3월 14일부터 5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8주 동안 오후 6시20분부터 10시까지 후러싱 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열린다. 뉴저지 지역은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행복한국교회(담임 이병준 목사)에서 열린다. 등록비는 150달러(3월7일 이후 180달러). 대상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유스 전도사, 교사.

▲문의: (312)286-4646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월례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꿈을 갖자, 비전을 갖자"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4년 첫 월례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가 23일 기쁨과영광교회(담임 전희수 목사)에서 2014년 첫 월례모임을 갖고 회장 박진하 목사 유임을 확인했다. 박진하 목사는 올 12월 총회까지 회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월 후원자의 밤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또 아동후원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기 위한 작업으로 아동후원금 반송봉투 및 후원자 월별 체크표를 후원자들에게 배부키로 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권케더린 목사 인도로 기도 김영환 목사, 설교 박진하 목사, 축도 이종명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진하 목사는 요한복음 14장 6

절을 본문으로 "꿈을 갖자, 비전을 갖자"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2014년을 맞아 첫째 기아대책이 하나 되는 목표를 갖자. 둘째 진리인 예수님을 알자. 셋째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알자"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뜻을 알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감으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단체가 되자"고 말했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뉴욕 일원을 중심으로 전 세계 아동후원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콜롬비아, 페루, 중국 등 6개국의 80여 명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함을 체험하자"

뉴저지교협 2014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뉴저지교협 2014년 신년감사예배를 마치고 교계지도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동욱 목사) 2014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이 지난 26일 오후 5시 필그림교회(담임 양춘길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동욱 목사는 신년사를 통해 "2014년도는 오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인자하심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말했다.

신년하례예배는 김동욱 목사의 인도로 김정훈 목사(뉴저지만교회)의 경배와찬양으로 시작돼 기도 이동구 장로(교협부회장), 성경봉독 홍인석 목사(교협청소년분과), 찬양 뉴저지장로성가단, 설교 김선훈 목사(필라교협회장), 특별기도 "미국과 조국을 위한 기도"/이성일 목

사, "교계와 교회를 위한 기도"/권형덕 목사, 봉헌기도 박영주 목사, 광고 박근재 목사, 축도 양춘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선훈 목사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창13:14-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받으려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힘들고 외로울 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특히 진실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하례 및 만찬은 총무 박근재 목사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가제창(애국가/미국가), 회장 신년사, 축가 뉴저지권사합창단, 뉴저지남성목사합창단, 축사 손세주 뉴욕총영사, 캐서린 도노반 비겐카운티장, 이재덕 뉴욕교협부회장, 공로패 수여(박상천 직전회장), 폐회기도 박상천 목사의 순서로 마쳤다. 만찬 기도는 장동신 목사가 드렸다.

(기사제공: 뉴저지교협)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 주최 설교세미나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앞줄 왼쪽부터 다섯 번째가 강사 임장기 목사.

"내러티브설교는 플롯이 프레임"

미주여성목회 임장기 목사초청 설교세미나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이미선 목사)가 주최한 임장기 목사초청 설교세미나가 지난 27일 뉴욕복음연합교회(담임 양승호 목사)에서 열렸다. 임장기 목사(뉴저지코너스톤교회 담임)는 '이야기식 설교'(narrative preaching)에 대해 강의했다.

얼라이언스 신학교 교수(실천신학, 설교학)이기도 한 임장기 목사는 먼저 "내러티브 설교는 스토리텔링과는 다르다.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플롯을 설교의 프레임으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전통적 강해설교는 논리가 프레임이지만 내러티브 설교는 플롯이 프레임"이라고 말했다. 즉 플롯이 심지 역할을 하고 포인트는 반전이라고 설명했다. 임 목사는 "강해설교는 병렬식 구조를 가져 설교자는 쉽지만 회중의 입장에서는 예측가능한 설교가 돼 지루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임 목사는 "모든 설교에는 2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첫째 석의적 아이디어(Exegetical Idea)는 본문 자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

이고 또 하나는 설교적 아이디어(Homiletical Idea)로, 석의적 아이디어를 회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내러티브설교는 이 설교적 아이디어를 플롯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설교는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어야 하며 설교적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은 말씀묵상과 리서치를 통해 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임 목사는 "내러티브설교는 첫째 화두를 던지고 둘째, 화두를 분석하고 셋째, 반전의 포인트를 잡으며 넷째, 복음의 메시지로 결론을 맺고 다섯째, 적용을 통해 도전을 주는 과정으로 전개된다"고 설명했다.

내러티브설교는 80년대 유진 라우리(E. Lowry)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한인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설교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오전 강의는 김수태 목사(어린양교회 담임)의 강도로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강도는 마태복음 20장 1-16절과 룻기 1장 2-5절을 본문으로 한 워킹으로 진행됐다.

(유원정 기자)



총신대콘서트콰이어가 퀸즈장로교회에서 공연하고 있다

"찬송으로 낙망을 이기자"

퀸즈장로교회서 총신대콘서트콰이어 미주순회공연

한국 총신대학교 콘서트 콰이어가 제6회 미주순회 음악회의 일환으로 지난 26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저녁예배에서 공연을 가졌다. 퀸즈장로교회에서 열린 집회에서 총신대 콘서트 콰이어는 이기선 교수의 지휘로 32명 학생들의 합창, 남성중창, 여성중창을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울동을 함께 시도해 젊음이다운 활기도 보였다.

연주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김성국 목사는 "낙망이나 찬송이나"는 제목의 설교에서 "음은 문제가 닦았을 때 원망과 탄식 대신에 찬양을 선택했다. 신학교 시절 가족문제, 건강문제로 좌절하고 있을 때 찬송가 '너 근심 걱정 말아라'가 큰 힘이 됐다. 문제의 중심에서 낙심하지 말고 찬양으로 이겨나가자"고 전했다. 총신대 출신인 김 목사는 설교에 덧붙여 격려와 칭찬으로 후배들을 고무시켰다.

합창단은 이날 첫 곡으로 '주를 보라'(이진실 곡)와 '평화의 기도'(Allen Pote), '주 하나님 크시도

다'를 연속으로 연주했다. 이어 남성중창단인 '구원열차'에서 귀여운 율동과 연기를 선보이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 합창단은 '스바냐 3:17', '나는 네 하나님이니'(Mary McDonald), '부르신 곳에서'를 연주하고, 'Same Train', 'Joshua Fit The Battle of Jericho', 'Takawaba Uwabanga Yesu' 등의 흑인 영가를 불렀다.

여성 중창단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연주한 후, 전체 합창으로 '위대하신 주', '주를 찬양', '마리아'를 연주했다.

합창단은 앵콜곡으로 'Praise His Holy Name'과 '나 감사하며 살리다'를 불렀으며 문경환 목사(동부개혁신학교 학감)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총신동문이 시무하는 한인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순회음악회는 이날 정오에는 뉴욕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공연했다.

(유원정 기자)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교협 30주년 맞아 행사 대회 논의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 증경회장단 간담회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허귀암 목사) 30주년 기념대회를 위해 증경회장단 간담회가 27일 오후 12시30분 알타시아에 위치한 국민반점사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올해가 교협탄생 3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30주년을 기념하는 대회 등 주요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의 결정사항은 △목회자 신뢰회복운동과 미자립교회 목회자 돕기 운동은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김영찬 목사)와 함께 연합해 진행하게 된다. 또한 30주년 기념대회는 오는 10월 20일(월)부터 22일(수)까지 갖게 되며 장소는 감사한인교회(담임 김경일 목사), 강사는 피종진 목사(남서울중앙교회 원로)다.

또한 발간될 30주년사에는 사진 중심의 앨범으로 제작하되 30년간 교협의 에피소드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엮어나가며 남가주중부지역 120개 교회에 무상 배부하기로 결의했다.



남가주중부교회 30주년 행사를 위한 증경회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증경회장 장재원 목사는 "3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교협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증경회장들이 지난 30년간 행사가운데 8.15 광복행사, 청소년 비전센터 사역, 카타리나 친교여행, 샌디에고 위로여행, 산크라멘텐 위로여행, 삼일절 행사, 어린이성경퀴즈대회 등 많은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다. 이 자료들이 30년사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면 좋을 것이다. 또한 매해 임원들이 교체될 때 임원이었던 사람이 계속 다음을 연결해갈 수 있도록 연속성을 유지했으면 한다. 임원 구성은 교단안배가 이뤄져 각 교단이 함께 협력하는 교회협의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준기 증경회장은 "중부지역의 각 교회가 어떻게 교회협의회와의 연합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수고해야 할 것이다. 각 교회가 동참할 때 교회협의회가 생명이 살아"고 말했다.



남가주말선교단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자 워크샵이 나침반교회에서 열렸다

남가주말선교단 '사랑의 교실' 워크샵

남가주 5개 지역 봉사자들 참여

남가주말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 사랑의교실 자원봉사자 워크샵이 지난 18일 오전 9시30분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영선 목사는 "미주말선교단 내 사랑의 교실이 미전역에 26개 남가주 5개가 있다. 전체가 모이기 쉽지 않다. 5개 장애인에 위한 봉사자들이 함께 모아 나누고 서로의 정체성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고등학교 학생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들에게 주는 큰 도전과 본인들이 함께 하는 마음이 오늘 워크샵을 통해 모아졌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샵은 사랑의 교실 소개

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큰 교회의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대 증경회장은 "교계에서 함께할 수 있는 30주년 기념대회가 돼야 한다. 교계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없다. 30주년을 맞아 이 기회에 회복하는 기회가 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협회장 허귀암 목사, 부회장 심명구 목사, 현에스더 목사, 총무 김준근 목사, 서기 최국현 목사, 회계 김순옥 목사, 특별위원 현진섭 목사, 청소년비전센터 사무총장 전동은 목사, 증경회장 이경환 목사, 민준기 목사, 장재원 목사, 김영대 목사, 오병의 목사, 김중현 목사, 박소연 목사가 참석했으며, OC목사회 회장 김영찬 목사, 박용일 목사, 임성필 목사, 남가주교협 총무 정종일 목사, 남가주목사회 회장 정종훈 등이 참석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이단대책 및 예방세미나

테메큘라밸리한인장로교회(담임 권경석 목사)에서 이단대책 및 예방세미나를 2월 8일(토) 오후 7시 개최한다. 강사는 한선희 목사(미이연회장, 세이언 이대위원장, 미주합동총회 이대위원장)이며 레마복음선교회(이명범)와 구원파(박옥수)에 대해 다룬다.

▲문의: (951)676-6884, (213)484-2574

2014 봄 평신도 신앙강좌

오렌지카운티 열린문교회(담임 이영찬 목사)에서 2014 봄 평신도 신앙강좌를 '다음세대의 신앙교육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강사는 이영찬 목사, 김도윤 목사(뉴솔로몬교회 담임), 한석호 목사(칼팍니스트), 조철수 목사(남침례대학/대학원교수)이며 2월 18일부터 4월 22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45분부터 오후 12시까지, 2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45분부터 오후 12시까지 각각 열린다. 등록은 사전등록(40달러)과 당일등록(60달러)이며 접수는 이메일(goodchul@live.com)과 홈페이지(www.fsministry.org)로 하면 된다.

▲ 문의: (714)904-0691

현대식 시인 첫 시집 출판감사예배 성황 '뒤돌아 앉은 산' 말씀묵상한 80여 편 수록

제17회 에피포도 문학 신인상으로 등단한 현대식 시인 첫 시집 '뒤돌아 앉은 산' 출판감사예배가 지난 21일 오후 6시 30분 용궁에서 열렸다.



현대식 시인의 첫번째 시집 '뒤돌아 앉은 산' 출판 감사예배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현대식 시인은 "여러 문학평론가들 칭찬해주셔서 몸뚱이 바를 모르겠다. 어린 시절 이복에서 살았었다. 11세 되던 1947년 가족이 숙청당하는 계기로 월남했다. 육신의 고향인 북한 땅을 생각해 왔다. 그러다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게 됐다. 영생의 고향에 대한 생각이 시로 쓰여지게 됐으며 그것이 모아져서 시집이 됐다"고 말했다.

로스펠리츠교회 장로인 현대식 시인은 "그동안 로스펠리츠교회 북카페에서 열리는 문화선교원 '시집'의 '큐티를 통한 시창작교실'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쓴 80여 편이 시들을 첫 시집으로 펴내게 됐다. 젊은 할미꽃, 다니미 인생, 어머니 모

습, 하늘 길 등, 이 시집에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분향으로 승화돼 있다"고 전했다. 이날 출판감사예배는 이영인(시진 동인)의 사회와 이준형 목사(로스펠리츠교회 부목사)의 기도, 신병욱 목사(로스펠리츠교회 담임)가 시95:1-5를 본문으로 설교했다. 이어 백승철 목사(에피포도예술인협회 대표)가 격려사를 했다. 백승철 목사는 "시집을 한권 발간한다는 것은 축하할 일이다. 이 시집 한 권속에는 시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시집에 관한 문의는 (818)517-9055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나침반교회에서 열린 이웃초청 신년음악회에서 테너 배재철 교수가 은혜로운 찬양을 선사하고 있다

나침반교회 이웃초청 신년음악회

테너 배재철 교수, 피아니스트 신상우 협연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는 이웃초청 신년음악회를 지난 24일 오후 7시45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테너 배재철 교수(한양대학교 성악과)와 피아니스트 신상우 선생(중앙아트 음악감독)이

무대에 올라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배재철 교수는 감성선암으로 성대수업을 받은 후 성대를 잃어버렸던 협회를 시절과 현재까지 오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간증으로 풀어갔다.

(박준호 기자)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신년축복성회에서 강사로 나선 피종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은혜한인교회 2014 온가족 신년축복성회 강사 피종진 목사 "요단 건너 복된 삶 살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는 2014 온가족 신년 축복성회를 지난 23일부터 4일간 개최했다. 금요일 저녁집회에 피종진 목사는 '요단을 건너라'(수3:6-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나안땅에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해마다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은 광야에서 죽어간 자들이 아닌 가나안땅에 들어가 복된 삶을 산 자들처럼 복의 근원이 되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피 목사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실천하며 은혜의 장소에서 거할 때 모든 성도들은 영적,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민자들은 누구나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고 축복받은 미국 땅의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께에서 특별히 이민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완수할 수 있다"고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금): 오전 5:30 EMB 대안: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김경일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나성서부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B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B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학교: 오전 6:00(토)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정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금): 오전 5:30 EMB 대안: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전 11:30 주일 4부(영성):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남가주리더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10 주일 6부예배: 오후 7:30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 4부예배: 오전 9:45,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예배: 저녁 7:30	등문교회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5:3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등양선교회 담임목사: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찬양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드림교회 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새천안교회 담임목사: 변운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금요학교: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6:0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3부: 오전 11:0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베델인교회 담임목사: 김한호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영성) 주일예배 5부: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 오전 5:30	새생명선교회 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오찬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아케디아 온누리 소망교회 담임목사: 조묘숙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전 5:30(월-토)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1:45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수요일오찬예배: 오전 11:00	얼빈인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요셉선교회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문화)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일 영어예배: 오후 6:0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제기도회: 365일 24시간 온로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1:15(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성) 장미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목회서신

세상적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리더십이 현대사회의 키워드가 된지 오래다.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회에서의 영적 리더십은 세상적 리더십과 달리, '군림형' 리더십보다는 '섬김형' 리더십이 더욱 효과적이다.

1. 세상적 리더십

주철환의 '성공하는 사람-7가지 'T'에서, '쌍기역(T)'이 들어간 한

단어로 리더가 가져야 할 7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다.

첫째, 리더는 '꿈'이 있어야 한다. 비전과 꿈을 제시할 수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지도자의 꿈만큼 모임은 발전할 수 있다.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꿈이 중요하다. 둘째, 리더는 지도자다운 '끼'를 발산해야 한다. 자기 색깔, 자기표현이 분명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해서는 매력적

인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셋째, '찌'는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지도자는 난국을 타개하는 '찌'가 있어야 한다. 현실을 탈출하려는 가벼운 잔 찌가 아니라, 세상(시간, 때)을 다스리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넷째, '깡'이 없�서는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밀고 나가는 추진력, 버티는 힘, 위기를 즐길 수 있는 담력이야말로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질이다. 다섯째, 지도자는 '꾼'이 되어야 한다. 어떤 방면에 미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은 처세와 권모술수의 '정치꾼', 비즈니스하는 사람은 탁월한 '장사꾼'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참다운 지도자는 자신의 '꿀'을 알아야 한다. 시냇물도 '꿀값'한다는 말이다. 자신의 '꼬라 지'를 알고, 그 '꿀'에 맞춰서 리더십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곱째,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리더십의 특징은 '끈'이다. 끈은 배짱, 땀, 줄을 말함인데, '네트워킹' 능력 등으로 해석된다. 인적, 환경적 네트워킹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2. 영적 리더십

교회를 섬기는 영적 지도자에게도 7가지 '쌍기역(T)'의 영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첫째, 영적 리더의 '꿈'과 비전은 세계선교이다. 사도 바울의 꿈과 비전은 로마를 통한 세계선교였다. 영적 지도자는 주님

의 지상명령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꿈을 가져야 한다. 둘째, 영적 리더의 '끼'는 은사개발이다. 영적 지도자는 그 만의 독특한 '끼', 은사와 능력이 있어 야 하고, 성도들의 '끼'인 은사를 개발, 그 은사를 사용하도록 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영적 리더의 '찌'는 분별의 지혜이다. 영적 지도자는 진리와 비진리, 성령과 악령, 의인과 악인, 이 시대를 분별하고, 위기와 환난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찌'와 담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영적 리더의 '깡'은 열정과 열성, 배짱이다. 온전한 영적 지도자는 엘리야나 바울같이 하나님께의 일에 대하여 순교도 불사할 정도의 뜨거운 열정과 열성, 그리고 배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영적 리더의 '꾼'은 예수전도인이다. 영적 지도자는 '교회'의 3가지 '꾼' 중 구경꾼, 말꾼이 되지 말고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에 미친 예수쟁이, 예수꾼이 되어야 한다. 여섯째, 영적 리더

의 '꿀'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이다. 예수님의 운유, 겸손, 섬김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 영적 지도자의 모습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꿀'이 나타나야 한다. 일곱째, 영적 리더의 '끈'은 하나님과 교회이다. 그의 배경, 땀, 줄은 하나님이시고, 네트워킹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 지체들이며,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복음의 끈(끈)으로 네트워킹해야 한다.

리더십의 대가인 풀러 신학교의 클린턴교수는 "리더에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는 것'(Finishing Well)"이라고 강조했다. 꿈과 끼, 찌, 깡, 끈, 꿀, 끈이 있는 지도자라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행사하며 나갈 때, '마지막까지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참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소장이 동지찾기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한인 커뮤니티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고 있다.

한인 프로그램 '동지 찾기' 1월부터 시행

한인가정상담소-LA아동보호국 포스터케어 가정 모집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 정)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아동보호국(LA County Department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 국장 필립 브라우닝, 이하 DCFS)과 함께 한인 아이들의 포스터케어(Foster Care)를 위한 가정모집 캠페인인 '동지 찾기' 프로그램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2일 오전 11시 LA 다운타운카운티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친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동지 찾기' 프로젝트의 출범을 알리고 한인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동지 찾기 프로그램은 부모의 학

대나 방임, 질병 등 가정 내외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친부모를 떠나 아동보호국 내 시설에 머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마련됐다. 이 아이들은 임시로 안전한 가정환경을 제공받으며, 친부모와 재결합 할 때까지 위탁 양육을 받게 된다.

현재 LA카운티에만 3만7000여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아동보호 아래 있으며 그중 800명의 동양계 어린이들이 포스터 케어 시설에 속해 있다. 특히 LA 카운티 일대에는 매년 위탁가정이나 입양의 손길을 기다리는 60여명의 한인 아동들이 있지만 가정 위탁 서비스를 신청한 한

인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커뮤니티 차원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다.

'동지 찾기' 프로그램은 6개월간 진행되는 파일럿 프로젝트로, 가정상담소는 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남가주 일원의 가정위탁 서비스 신청 및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KFAM 에스더승 프로젝트 매니저는 "한인 위탁가정 모집 캠페인인 '동지 찾기'는 상처받은 한인 아이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참여를 호소했다. 피해 어린이를 위한 위탁가정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과기록이 없는 만 18세 이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안정된 것만 입증하면 된다.

또한 아동보호국에 따르면 기본적인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일정한 교육을 수료할 경우 정식 포스터케어 가정이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 가정에 대해 재정 및 의료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정상담소는 동지 찾기 프로젝트의 첫 단계로 오는 2월 22일(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동안 남가주사랑의교회에서 포스터가정 모집안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자세한 문의는 (844)532-6459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도시공동체 연구소가 주관한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향한 도전' 이란 주제의 세미나가 세계선교교회와 LA기윤실 공동 주최로 지난 21일 세계선교교회에서 열렸다.

"선교적 교회를 향한 도전" 주제

LA기윤실-세계선교교회 주관 도시공동체연구소 주최

LA기윤실(대표 허성규, 흥진관)과 세계선교교회(담임 최은형 목사)가 공동주관하고 도시공동체연구소(소장 성석환 박사)가 주최한 세미나가 '선교적 교회를 향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지난 21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세계선교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풀러신학교 마크 브랜슨(Mark Branson) 박사가 '왜 선교적 교회인가?', 성석환

박사가 '선교적 교회의 다양한 표현들', 이남정 목사(서울 비람빛교회 담임)가 선교적 교회를 향해 가는 현장경험을 각각 강의했다.

마크 브랜슨 박사는 'Why Missional Church?'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교회 안에서 수 년 동안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모든 교회들이 계속 일어나는 세대 변화를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다. 이민교회는 주위 이웃이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

다. 리더로서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문화가운데 어떻게 변화시키시기를 이해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선교적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어디에서 가져와서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리더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아닌 사람들을 관찰하고 들으며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묻기 전에 그들을 관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교적 삶을 통해 약속하신 것은 성도들 삶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리더로서 그런 성도들이 그렇게 일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든다면 이웃 성경을 통해 대화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분별하고 경청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는 과정을 택해야 한다. 미셔널라이프는 긴 시간 동안 우리이웃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분별하고 그 인생을 즐겨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Fuller한인M.Div.동문회 가족 수양회(Family One Day Retreat)'가 데저트 팜스 온천(Desert Hot Springs, CA)에서 1박2일간 개최됐다.

풀러한인M.Div동문회 가족수양회

친교 및 목회정보교환...특강 고승희, 조성현 목사

새해를 맞아 풀러(Fuller) 한인 M.Div동문회(회장 박세현 목사)가 가족수양회(Family One Day Retreat)'를 가졌다.

마틴루터교회에 연휴였던 19일과 20일 데저트 팜스 온천(Desert

Hot Springs, CA)에서 열린 첫날 저녁 동문회 전 회장 고승희 목사(아름다운교회 담임)의 목회강의가 있었으며 이어서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밤늦은 시간까지 교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오전에는 동문 조성현 목사(멕시코 선교사)의 특강이 있었다.

이번 가족수양회는 동문가족 간의 친교 및 목회정보 교환(Networking)을 통해 '그리스도의 일군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 위한 행사가 됐다.

한편 19일로 예정됐던 제15대 'Fuller한인M.Div동문회 총회'는 신년 초 바쁜 목회 일정들로 인해 많은 동문들이 참석을 못해 2월 또는 3월 중에 다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기사제공: 풀러한인동문회)



명지대학교와 KCCD의 MOU체결식에서 유병진 명지대학교 총장과 임혜빈 KCCD회장이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한인기독교개발협회-명지대 MOU 체결

"차세대 봉사정신 함양 및 삶의 질 높인다"

한인기독교개발협회(KCCD, 회장 임혜빈)와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 박사)는 지난 22일 저녁 7시 JJ그랜드호텔에서 MOU(업무협약 체결)를 맺었다. 이날 명지대학교에서는 유병진 총장을 비롯하여 김성철, 김용태, 최현선 교수와 채은정 사무장이 참석했으며 KCCD에서는 임혜빈 회장, 박종대 이사장, KCCD 스태프로 Maria Oakey, 이숙희, 김

모세, 이하나 등이 참석했다. KCCD와 명지대는 커뮤니티봉사와 글로벌 리더 발굴 및 양성, 그리고 효과적인 사회참여 연구 및 포럼 개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봉사의 정신을 함양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며 더불어 행복을 추구하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오는 5월 중순경에 3일간 백악관과 국회의사당에서 KCCD

가 주관하는 APICL(Asian Pacific Island Christian Leadership) 세미나를 시작으로 제반 업무를 같이 하기로 하며, 내년부터 명지대학 국제학부에 사회봉사에 참여도가 높은 학생들을 장학생으로 보내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한국에 있는 학생들을 이곳으로 초청해 영어훈련 및 인턴십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명지대학은 유병진 총장은 "명지대학교는 한국의 기독교대학 중 유일하게 개인이 세운 학교"라고 소개하며 "학교가 설립될 때 기독교정신과 기독교교육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MOU는 명지대의 설립정신이 교육을 통한 하나님나라 확장이자 생각한다. 이번 방문으로 KCCD와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하나님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KCCD 임혜빈 회장은 "기독교정신에 같은 뜻과 목적을 가진 한국의 유수대학인 명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하게 돼 차세대를 키우는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유병진 총장과 양해각서를 서로 나눴다.

(박준호 기자)



김영진 장로가 자신의 삶을 들려주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김영진 장로 의회선교교회활동보고 조찬모임

미국을 방문 중인 김영진 장로(한국기독교협의회 평신도 부총회장)가 지난 21일 오전 7시30분 가든스윗 호텔에서 남가주교회협의회(회장 박효우) 주최로 열린 조찬모임에서 의회선교교회활동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정종일 목사(남가주교협 총무)사회, 원영호 목사(남가주교협 수석부회장) 기도, 박효우 목사와 정종일 목사(남가주목사회 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김 장로의

의회선교교회활동 보고로 이어졌다.

김영진 장로는 국회의원(5선)으로 활동하기까지의 상황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전하며 "크리스천 국회의원으로 국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일해왔지만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이 일들을 감당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했다.

김 장로는 국회조찬기도회를 위

한 조식이 매년 11월 구성돼 이듬해 3월에 해체해오던 것을 연중 사역할 수 있도록 상설기관으로 세웠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일본, 대만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국가조찬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헌신해왔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동성애, 동성혼입법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때 57명의 의원들이 전격 발의해 의회선교연합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와 국회조찬기도회, 국가조찬기도회, 세계성서화운동본부, 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등과 연대해 '한국교회 동성애동성혼 국회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입법을 철회시키기도 했다.

김 장로는 "국회에 104명의 크리스천들이 있다 이들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돼 국회가 변화되는 일에 앞장 설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했다.

김영진 장로는 5선 국회의원, 전 농림부장관, 민주당 부대표, (사)국가조찬기도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국민상, 마틴루터 킹국제평화상, 우크라이나건국최고훈장, 세계평화상 분상 등을 수상했다.

(이성자 기자)

'태초에 아담이 받은 4대 축복'

군사랑선교회 신년모임, 회장 김희창 목사 설교

군사랑선교회(회장 김희창 목사) 신년모임이 지난 25일 오전 11시 웰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박사)에서 열렸다.

이중수 부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1부 예배는 이기원 사무총장이 기도를, 김희창 목사가 '태초에 아담

이 받은 4대 축복'(창1:26-3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진 중보기도는 1)조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을 위하여 2)세계선교, 민족과 군복음화를 위하여 3)환자들을 위하여 4)회원배가 운동을 위하여 등의 제목으로 했다.

이날 예배는 최학량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순서로는 회원들의 친교 및 만찬으로 이어졌다.

다음은 군사랑선교회 임원 명단이다.

△명예회장: 임동선 목사 △원로회장: 김명관 목사 △원로사무총장: 이신모 장로 △회장: 김희창 목사 △부회장: 이종수 집사, 정봉덕 집사 △사무총장: 이기원 장로, 조순제 집사 △총무: 이성희 선교사. (기사제공: 군사랑선교회)

한국 교회 2014 전망 ② 예장 통합

예장 통합(총회장 김동업 목사)은 예장 합동과 함께 한국교회에서 쌍벽을 이루는 교단이다. 65개 노회, 8417개 교회가 소속돼 있으며, 280만명의 성도와 2만여명의 목회자가 가입돼 있다. 예장 합동(141개 노회, 1만1530개 교회)과 수치상 차이가 있지만 성도 수는 비슷하다. 탄탄한 조직과 사업콘텐츠, 연합사역의 전통 등 깊은 예큐메니컬 운동 역사를 갖고 있어 한국교회를 이끄는 핵심교단이라

회상 지원센터 설립, 총회연구단체협의회 재건, 동북아 에큐메니컬포럼 창립 추진, 치화생 성경공부 교재·설교집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교단의 다른 중점 사업들은 20개 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라 진행된다. 교단은 올해 한국교회의 연합과 장로교단 일치, 총회 기구개혁, 한국찬송가교회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총회 임원들은 교회·노회·총회라는 구조 속에서 '정책총회, 사

③ 기감

올해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는 혼란에 빠진 교단 내부를 추스르는 게 급선무다. 지난해 7월 선출된 전유재 감독회장이 불법선거운동 문제로 2개월 만에 낙마한 뒤 교단 내 내막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특히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에 대한 불신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연회감독과 총회실행부위원 등 20여명은 임 직무대행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감독회장 직무대

행 신임 요청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 요청하는 등 연초부터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추진되는 꾀직한 교단 차원의 부흥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감은 지난해 8월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와 청년대회를 잇달아 열며 시작한 성령운동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6월 '하디 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가 예정돼 있다. 기감 선교국 총무 직무대리인 태동화 목사는 "지난해 성령한국 기도성회 때처럼 감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총부흥회를 중심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교연 새 대표회장에 한영훈 목사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새 대표회장에 한영훈(70) 예장 한영 총회장이 선출됐다. 한교연은 27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3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2차 투표 끝에 한 목사를 제3대 대표회장에 선출했다. 이날 252명이 참여한 1차 투표에서 한 목사와 권태진 전 예장 합심 총회장은 126표로 동수를 얻었으나, 217명이 참여한 2차 투표에서 한 목사가 118표를 얻어 당선됐다. 한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선거 등을 준비하면서 3년 넘게 표를 다져온 반만 권 목사는 2개월 전 선거전에 뛰어들어 조직력 면에서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의 정체성을 바로잡고 정부와 사회에 건전한 영향력을 미치는 데 주력하며 종교인 과세문제, 차별금지법 철폐 등의 이슈에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남북관계 회복과 북한 교회 세우기 운동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교단과 단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협력을 구하고 교단장 초청 정책워크숍 등을 개최해 회원 간 소통에 힘쓰겠다"면서 "대인론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실천운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영훈 총장과 어려운교회돕기운동본부장을 맡고 있는 권 목사는 국민일보와 세계복음화협의회가 공동주관 하는 국민대상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총회에는 구자우 예장 고신 사무총장과 김장진 예장 고려 총무가 등단해 참여의사를 밝혔다. 두 교단이 오는 9월 총회 결의 후 가하면 한교연에는 예장 통합, 백석, 합심, 대신, 기성, 기하성 등 36개 교단과 한국기독교장로회연합회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현재 정식 회원이 아닌 교류교단은 기하성 여의도순복음, 기침, 예장 고신, 고려 등이다.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에 초점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4년 예장 통합의 핵심 정책 방향은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운동 10년'(이하 생)에 놓여 있다. 이 프로젝트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세계교회협의회(WCC) 부산총회 주제를 반영한 것으로 치유와 화해 없이는 생명과 정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뜻이 담겨 있다. 올해 2년차를 맞은 '치유생'은 생명공동체와 치유·화해를 위한 공동체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다. 교단은 이 취지에 따라 98회 총회 주제를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로 정했다. 나아가 '치유생' 운동은 목회 위기감 극복방안과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3년 과정'(이하 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총회는 목회 현장에서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추진하고 치

영노회'의 원칙을 실현시키기 위해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총회 정책을 소개하고 지역 현안과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임원들은 다음 달 28일 강원지역을 마지막으로 찾는다. 교단은 또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기감 출신의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후임에 총회 인사를 추천할 예정이다. 관례상 NCKC 총무는 기감, 기감, 예장 통합이 순번제로 맡아왔다. 이흥정 예장 통합 사무총장은 "예장 통합은 글로벌 총회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의 흐름에 맞춰 교단의 중추적 주제사업을 세우고 있다"면서 "총회는 지역 교회와 노회에 주제에 따른 자살예방운동, 생활 십일조 운동, 전기 없는 예배드리기 운동 등 세부 이벤트를 제시하고 동기부여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더십 공백 치유가 현안

행 신임 요청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소집 요청하는 등 연초부터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추진되는 꾀직한 교단 차원의 부흥운동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감은 지난해 8월 '하디 1903 성령한국 기도성회'와 청년대회를 잇달아 열며 시작한 성령운동을 올해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6월 '하디 1903 성령한국 선교대회'가 예정돼 있다. 기감 선교국 총무 직무대리인 태동화 목사는 "지난해 성령한국 기도성회 때처럼 감리회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총부흥회를 중심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디 1903' 올해에도 계속

평신도단체를 중심으로 한 동대문교회 지키기 운동도 주요 현안이다. 기감 동대문교회역사보 존추진위원회는 서울시의 동대문성곽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교회 철거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도회와 집회를 잇달아 열고 있다. 21일 오후에도 서울 세종대로 기감 본부 앞 희망광장과 서울시장 앞 광장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이밖에 기감 교육국에선 차세대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주일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감리교회학교 부흥운동본부'를 출범시키는 안도 검토 중이다. 기감의 올해 사업 예산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감은 조만간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를 열며 예산안을 다루고 지난해 임시임원회의에서 통과된 장정개정안을 공포할지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깊어지는 기감 '내홍' 감독회장 직무대행 자격 논란 따라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임준택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자격 논란으로 불거진 내용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기감에 따르면 임 직무대행은 최근 '감독회장 직무대행 선임 요청의 건'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반려했다. 연회감독 8명과 총회실

행부위원 등 21명은 지난 10일 소집 요청서에 임 직무대행에 대한 '사퇴 권면서'를 첨부해 제출했다. 임 직무대행은 반려 이유서에서 자신이 지난해 10월 임시총회 실행부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선임된 만큼 새로 직무대행을 뽑는 것은 의제로서 합당하지 않다고 밝

혔다. 또 소집 요청서에 있는 서명이 원본이 아닌 복사본인 것도 문제 삼았다. 임 직무대행은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가 아니라 정기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기감 본부의 2014년도 예산 편성 및 전년도 결산 심의를 위한 정기 총회실행부위원회의 소위원회 심사 등의 과정을 거처야 하는 만큼 오는 3월 초쯤 소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부 감독들은 "직무대행 선임을 의제로 하는 소집요

청서를 또다시 낼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정원 중앙연회 감독은 "교리와 장정에 따라 실행부위원 3분의 1 이상인 소집 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속히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며 "소집 요청서의 서명은 본인들이 직접 한 것을 복사해서 첨부한 만큼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임 직무대행은 같은 안건으로 임시 총회실행부위원회 소집 요청을 하면 다시 반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마수, 개교회 넘어 전 지역교계 겨냥

신천지에수교증가장성전지 지역교계를 통해 포섭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놓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26일 신천지대체전국 연합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공주지역 추수밭 전도 가이드북'에 따르면 신천지는 정통교회의 내부사정을 살피기 위한 뒤 치밀하게 맞춤형 포교 전략을 수립했다. 신천지가 성도 개인이나 특정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계 전체를 공략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매뉴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신천지의 발호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신천지 마수, 개교회 넘어 전 지역교계 겨냥 신천지에수교증가장성전지 지역교계를 통해 포섭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놓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26일 신천지대체전국 연합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공주지역 추수밭 전도 가이드북'에 따르면 신천지는 정통교회의 내부사정을 살피기 위한 뒤 치밀하게 맞춤형 포교 전략을 수립했다. 신천지가 성도 개인이나 특정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계 전체를 공략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매뉴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신천지의 발호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2050년, 기독교인구 300-400만 명으로 감소"

강성형교회 세우기 콘퍼런스, 강사 미래학자 최윤식 소장 "변화 없는 한국교회의 앞날은 어둡기만 할 것입니다." 아시아인재미래연구소 최윤식 소장은 최근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서판교로 꿈꾸는교회(박창환 목사)에서 열린 강성형교회 세우기 콘퍼런스에서 "저출산 및 고령화의 파

급력과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한국교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2050년쯤이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300만~4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소장은 "한국교회는 2010년부터 30~55세 연령층이 본격적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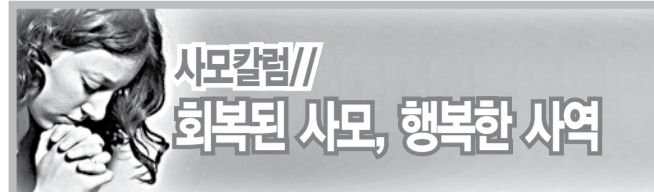
로 감소하는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20~30년간 장년층은 줄어들고, 55세 이상은 증가하며 더불어 주일학교의 완전한 쇠퇴가 닥칠면서 '늘고 작은 교회'의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인한 한국교회의 붕괴 가능성도 제시했다. 최 소장은 "1·2차 베이비붐 세대 1640만 명이 은퇴하는 2028년 즈음이면 교회의 헌금이 반 토막이 날 가능성이 크다"며 "10년 이내에 적

게는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백억의 빚을 이기지 못하고 부도나는 교회도 속출하고, 많은 교회가 통폐합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매각할 곳을 찾지 못한 교회들은 이단이나 다른 종교기관에 넘겨지는 치욕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대안으로 "한국 기독교의 쇠퇴기를 인정하고, 성장의 한 계선을 돌파할 수 있는 '재창조·갱신적 목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천지에수교증가장성전지 지역교계를 통해 포섭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놓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26일 신천지대체전국 연합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공주지역 추수밭 전도 가이드북'에 따르면 신천지는 정통교회의 내부사정을 살피기 위한 뒤 치밀하게 맞춤형 포교 전략을 수립했다. 신천지가 성도 개인이나 특정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계 전체를 공략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매뉴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신천지의 발호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신천지 마수, 개교회 넘어 전 지역교계 겨냥 신천지에수교증가장성전지 지역교계를 통해 포섭하기 위해 방대한 분량의 가이드북까지 만들어 놓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일보가 26일 신천지대체전국 연합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공주지역 추수밭 전도 가이드북'에 따르면 신천지는 정통교회의 내부사정을 살피기 위한 뒤 치밀하게 맞춤형 포교 전략을 수립했다. 신천지가 성도 개인이나 특정 교회가 아니라 지역 교계 전체를 공략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매뉴얼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신천지의 발호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의미다.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광교동3길 북구 공문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창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14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967(토요일) VIA DEI QUINTIL 32-30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4:30 (1부부터 시작) Tel: (82)2-440-9000, Fax: (8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0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00 저녁예배: 오후 7:30 (월요일을 위한 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13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길 29(감일동) www.seonngil.or.kr Tel: (82)2-998-999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3:00 수요예배: 오전 5: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 (01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2(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교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길 29(감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Tel: (82)2-786-6579, 새벽: (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동 49-45	안암 2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8: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7:00 금요기도회: 오전 9:30 Tel: (02)942-8881, Fax: (02)942-8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성3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299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 (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북구 성서3동 448-23	청주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성2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임진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오교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성경강좌: 새벽 7:00, 9:00(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 www.pc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곡동 415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 1251, Cambuqui S, Paulo Cep 01529-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adeira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8: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6-PAUOL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3: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양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오교성경강좌: 저녁 9:00 714종교기도회: 아침 7:40 우.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E-mail: hkn@hknparaguay.com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파라과이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 2, 3, 부스 스페니얼 설교) Tel: (595)21-574-985 E-mail: hkn@hknparaguay.com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8. 사모의 인격가꾸기 (4)

크리스천이라면 반드시 거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향한 바램은 자신들은 온갖 죄를 다 범해도 되지만 크리스천만큼은 거룩하기를 기대합니다. 사모는 더욱 더 그러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마저도 자신들은 죄를 저도 사모는 거룩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사모들은 또 다른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사모의 자리가 다른 이들과 특별하게 거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모든 것에서 풍겨져 나오는 인격이 다른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역 전체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보면 여호와 자신이 누구임을 강조하며 누누이 소개하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이후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이를 위해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훈련에 훈련을 가했던 것입니다. 인격

받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 터득해야 인격성숙 가능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 받아야

은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4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백성들의 세포 속에 배어 있는 죄악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40년의 광야생활이 절대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인격이 무시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생활은 자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동물처럼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차 있어 아무 소망없이 하루하루 타인에 의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깨어나 출애굽시킨 후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임을 알려주기 위해 난관을 허락하셨고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새로 설정해나갔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를 애굽에서 건져 낸 여호와'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응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난관 앞에서 번번이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백성을 인도하였던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마침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인간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란 그의 저서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상관없는 경건의 모양이나 경험은 다 거짓입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인간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타종교에서 강조하는 인격 수양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기독교는 도덕과 교양내지는 인간의 방법으로 인격을 단련하려는 이론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교회 안에 복음은 서서히 뒤로 물러가고 도덕을 운운하다보니 성도들의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질 뿐, 교회 안에 참 즐거움과 축제의 분위기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모들의 어깨를 가장 짓누르며 무겁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란 구원의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게 되는 것인데 막상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는 온갖 심부름으로 사모들은 예배를 뒤로 두고 갖은 일만 하다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의 그 어떤 노력 갖고도 거룩을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그의 거룩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하는 수 없이 경건의 모양이라도 해야 합니다. 온갖 종교활동으로 자신의 인격을 포장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사모사역을 오래 하다보면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하게 되어 능숙해집니다. 성도들을 다루는 방법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 버린 채 아무 감각없이 능숙하게 교회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이 없으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온갖 세상의 세력 앞에 결국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코람테오(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절대 필요합니다. 특히 사모들에게 이것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가 되기 위해서는 날로 변화되는 이면사회와 이민교회 안에서 생기는 풍조들 앞에 힘입어 쓰러져가는 사모들에게는 더욱 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온갖 스트레스 앞에 무력해지는 자신들의 모습은 패잔병의 모습 그 자체입니다. 사모들의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져 건강을 해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기라도 되면 과도처럼 밀려오는 무력감으로 수면제없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사모교실을 할 때마다 인격 가꾸기를 위해 우선 하는 것이 스트레스 원인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남편목사님으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이것이 다른 세상 직장인들의 아내와 다른 점입니다. 남편의 사역에 아무리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해도

교회가 바라보는 눈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실력 부족이 아내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성도들의 인식이 사모들을 심하게 죄이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라도 잘 못할 시에는 사모가 뭐하고 있는 사람이나로 시작해서 목사자녀에게 허점이라도 보이게 되면 화살은 사모에게 가게 마련입니다. 이럴 때 사모들은 안그래도 사모일이 힘들고 어려운데 양쪽 어깨에 무거운 짐을 더 안겨주는 셈이 됩니다.

사모 탈피!! 이것은 사모들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렇다고 주일예배에 빠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힘들어도 억울해도 남편의 설교에 죽을 쏘는 날에도 사모는 뒤에 앉아서 온갖 화살을 다 받아야 합니다. 이럴 때 사모들은 스트레스가 충만(?)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사모들이 받는 종류는 특이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더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는 노력보다는 일단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인격성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오래 쌓이면 건강도 해질 뿐 아니라 성격이 기형적으로 변화되고 따라서 인격은 병들어가게 됩니다. 사모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모들끼리의 모임을 인도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평신도, 목사. 그 다음 가장 어려운 부류가 사모들이랍니다. 그 이유는 병든 인격을 고칠 새 없이 그냥 사역에 찌들어가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찌들어 있던 인격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40년의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들의 인격의 병도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 쉽다. 그 말씀으로 수시로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2)

기도할 때 우리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라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연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맹세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지요!

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3)

새벽에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기도의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본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는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과 "바라리이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 한 시간은 저녁에 몇 시간보다 그 가치가 큼니다. 풀잎이 말랐을 때보다 밤새 풀잎에 이슬이 맺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혼에 넘치도록 기도하는 것

은 우리 삶을 놀라게 윤택하게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활을 쏘 후 그 활이 확실히 목표물에 꽂혔는지 끝까지 보는 것을 말합니다. 히브리원문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진열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바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승리의 합성을 지르시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수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4-6)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닮기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든 악의 형태를 싫어하게 되고 이것을 멀리하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악이 주와 함께 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

나님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고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어긋나는 것이 나에게도 있음을 발견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목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7-10)

기도하는 성도들은 항상 자신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히브리원문에 보면 7절 앞에 "나로 말하자면"이라는 말이 강조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나로 말하자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특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나

울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 때 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를 경외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의 아름다운 매력요 능력입니다.

금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시5:11-12)

새벽기도의 축복은 결국 영혼의 축복이 임할 것을 미리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시작은 눈물로 씨를 뿌릴찌라도 결국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

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주심으로 맘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라는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됩니다. 오직 주님께 피하는 분은 다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로 영영히 기뻐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더욱 즐거워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의인에게 복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의인의 기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토 여호와여 긍휼히 여기소서(시6:1-2)

시편에는 총 여섯 편의 대표적인 "참회의 시"가 나오는데 6편이 맨 처음 나오는 시입니다. 본 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죄악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언어이기 때문에 "참회의 시"로 구분했습니다. 본문은 신실한 성도의 기도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견책과 징계를 달게 받아들이는 자세로 나아갑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 뭔가 힘든 상황에 다칠 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취할 수 있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무조건 없애주기를 바라고 그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달게 받겠사오니 진노로 징계하지 마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4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4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Following information is regarding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which will be offered in May of 2014. Those who wish to become candidates are encouraged to send in all the necessary documents to begin the process. Those who prefer the use of English may submit all documents and take exams in English.

1. Candidacy Qualification

The applicant must be a M. Div graduate (or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of a seminary (acknowledged) by KAPC. He must have a clear confession in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he also should be a Christian in good standing in a local church with a clear sense of calling into ministry, and with a recognized gift in leadership.

2. Examination Date and Place:

- 1) Dates: May 16(Fri) - 19(Mon), 2014
- 2) Place: Toronto, Canada

3. Examination Subjects

- 1) Written Test : (1)Church History, (2)Systematic Theology, (3)American Church History (4)Constitution of KAPC
- 2) Written Assignment : (1)OT Exegesis Paper (2)NT Exegesis Paper (3)Thesis Paper (4)Manuscript of Sermon

- (1) OT Exegesis Text - Leviticus 21:1-9
- (2) NT Exegesis Text - Luke 16:19-26
- (3) Thesis Topic - Plagiarism and integrity
- (4) Sermon Text - ① NT: 1 Corinthians 15:1-10

During the exam period, candidates will be asked to preach from their written sermon.

(5) Instructions for the written assignments: You must submit one hard copy and email a PDF file of each written assignme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gulations:

- 1. Use 8-1/2 by 11 letter size papers.
- 2. Use 12-point font and double space the text.
- 3. Both thesis and exegetical paper and should be about 25 pages each in length.
- The length of the sermon text should correspond to 30 minutes of actual preaching time.
- 4. Use a common academic writing format for thesis, and all quotes, and cited information must accompany proper references (i.e. footnotes or endnotes).
- 5. All PDF files must be emailed to syhan91@hotmail.com with the following instructions:
 - a) The subject line must include your name
 - b) File attachments must include your name and assignment title. (Example: Samhan-OTExegesisPaper.pdf)
 - c) You may send multiple emails if your files are too big

3) Oral Interview

4. Accompanying Documents

- 1)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graduation with M.Div. degree of a letter from the registrar (or the president of a seminary) certifying that the candidates is expected to graduate before June 30 of 2014.
- 2) An official copy of transcript for the whole M.Div. program
- 3)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moderator of a Presbytery that the candidate is under care.
- 4) An official letter from a Presbytery (issued by the clerk) confirming that the candidate under care is in good standing.
- 5) Curriculum Vitae(CV) including a clear history of faith (For example, the year of infant baptism, the name of the church where the baptism was given and the name of the officiating minister, etc.)
- 6) Two passport-size photos of the candidate.
- 7) Fee: \$150 (US)

5.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1) All required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must be submitted by March 31, 2014. (Packages post-marked before March 31, 2014 are valid. No late submissions will be accepted.)
- 2) The candidates will not receive back the submitted documents and assignments.
- 3) The result of exam will be announced during the 38th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May 20-22). The candidates who successfully sustain the examination process will be introduced to the floor and will be given Ordination Candidate Qualification Certificates.

6. Miscellaneous Information

- 1) Candidates must reserve rooms appropriately for the dates of exam (May 16-20) through Rev.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2) Candidates may use personal notebook computers for written exams, but the following conditions must be met.
 - 1. The personal notebook must contain only a Word Processing program.
 - 2. The screen is not to be changed during an exam. Violators will not be tolerated and will result in dismissal from the exam room.
 - 3. One must bring his own printer. Any mechanical problems will not constitute a valid excuse for failing to submit the exam on time.

7. Submission Address

Rev. Se Young Han / Address: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Cell : 703-945-2958 E-mail : syhan91@hotmail.com

8.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1) Chair of the Exam Committee : Rev. Samuel Heo (201)981-0009 (sheo1004@hotmail.com)
- 2) Clerk of the Exam Committee : Rev. Se Young Han (703)945-2958 (syhan91@hotmail.com)
- 3) nquires in English : Rev. James Kim (949)735-4905 (pastorjames@jubileepci.org)

총회장 : 엄영민 목사 서기 : 고택원 목사 고시부 부장 : 허상희 목사 고시부 서기 : 한세영 목사

볼티모어교회 이영섭 목사

성역50주년 기념 및 원로목사 추대예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수도노회 공로목사 추대도 받아

볼티모어교회(담임 김현국 목사)는 지난해 마지막 주일인 12월 29일 30년4개월간 담임 목사로 시무했던 이영섭 목사 성역 50주년 기념 및 원로목사 추대예배를 드렸다. 또 이날 이영섭 목사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엄영민 목사) 수도노회의 공로목사로 추대됐다.

이날 예배 설교는 장영춘 목사(본지 발행인)가 "영광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

했다. 이영섭 목사는 담사에서 성역 50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첫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 세 번째는 사랑하는 아내의 내

조,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끊임 없는 사랑과 기도의 은덕"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목사는 신학생 시절이었던 1963년 7월 17일 밤 1시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고 말씀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지난 50년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게 됐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됐다고 간증을 했다.

그로부터 지난 50년간 매일 기도하면서 첫 번째 기도제목은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였다.

이 목사의 목회철학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으로, 한마디로 "목회는 인내"라고 말한다. 잘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목회에 승리하



감사

반세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심히도 부족한 목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이 부족한 목사가 여기까지 지내온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이 택하셔서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50년 동안 저를 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할수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63년 7월 17일 밤 1시 제가 신학생 시절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말씀의 은사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 꿀같이 달고 맛이 있어 성경을 잡기도 제 손에서 놓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졸업할 때 성경을 100권을 읽고 성경구절 3000절을 암송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셨습니다.

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여주소서." 사람 마음에 맞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해달라

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를 50년 동안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일생 3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때마다 아슬아슬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많은 회개와 함께 축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사히 성역 50년을 마치고 원로목사로 추대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뜨겁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저의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제가 2살 때 저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버님 어머니는 기도의 용장이셨습니다. 참으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저의 아버님만큼 기도 많이 하신 분이 과연 이 세상에 몇 분이나 계실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예수 믿으면서부터 얼마나 지성스럽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저의 형제가 2남 5녀였습니다. 저의 형님이 계시고 누님이 다섯이 계시고 제가 막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예수 믿자마자

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제 두 아들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두 아들 목사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형님은 곧장 신학교에 들어가시고 저는 말 배울 때인 3살 때부터 너는 커서 목사가, 너는 커서 목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커서 목사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커서 목사되겠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저의 가정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번도 걸러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 보고 목사라고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의 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 혼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쪽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도 제 별명이 목사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저 보고 목사라고 했습니다. 저 목사 된 지 45년 되었는데 정말 목사 오래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목사로 살게 되었습니다. 제 일생 한 번도 세상 길길로 가지 않고 곧장 한길 이 귀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엄격한 아버님의 신앙을 본받아 살게 된 것을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해 주신 부모님의 기도의 열매 따 먹고 있다고 저는 늘 그렇게 믿으면서 천국에 계시는 저의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 아내가 내조를 잘해줘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을 같이 살면서 성품이 워낙 착하고 너그럽고 원만한 성격이어서 제가 목회하는데 너무 많은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목회의 길, 이 사명의 길을 걸으면서 한번도 짜증을 내거나 불만족스러운 말을 한 일이 없습니다.

때로는 목회자인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데 왜 걱정하느냐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늘 위로 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저에게 너무 좋은 아내, 착하고 지혜있는 아내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가 목회자의 아내로 맞아서 일생을 저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께 뜨겁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프로포즈를 많이 해도 믿음 없다고 다 뿌리치고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 목사인 저를 너무 잘 내조해줘서 성역을 무사히 마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 하는 아내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간호사로 병원에서 일하면서 많은 의사들이 그렇게 프로포즈를 많이 해도 믿음 없다고 다 뿌리치고 가난한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 목사인 저를 너무 잘 내조해줘서 성역을 무사히 마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랑 하는 아내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에 이

게 된다는 것. 또한 목회자는 장거리 선수가 돼야 한다며 항상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목회의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목사는 지난 50년간 미국과 한국, 세계 각국의 1000 교회 이상 부흥회와 세미나를 인도했으며 38년간 신학교에서 후배를 양성하는 교수로 사역했으며 워싱턴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으로 10년 재 수고하고 있다.

이 목사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도 해주실 줄 확신한다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린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영섭 목사의 답사. <사진은 이영섭 목사 부부>

르게 된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심히도 부족하고 허물 많은 목사를 30년 넘게 끊임없이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사랑하시는 볼티모어 교회 당회원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교회 장로님들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때로는 목사가 하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목회자인 제 마음을 평안히 해주신 사랑하시는 장로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목회자 위해서 늘 기도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수도노회 생긴 이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부족한 사람을 공로목사로 만장일치로 한 마음이 되어 공로목사로 추대해 주신 존경하는 노회장 목사님과 여러 노회원 목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를 세계한인목회자세미나 강사로 13번이나 불러주신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영춘 목사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뉴욕에서 여기까지 손수 운전해 오셔서 귀한 말씀 선포해주신 장영춘 목사님과 사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복지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볼티모어교회가 사랑하는 김현국 목사님을 모시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잘 받들며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다 이루어 드리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책 소개

"가이오의 축복"

저자 서삼정 목사



서삼정 목사(에들란타제일장로교회 담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들은 받을 놀라운 복에 관해 수록한 "가이오의 축복"(두란노 230쪽)을 출간했다. 저자는 서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가 받을 놀라운 복 지술

에서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그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수록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14개의 목상 질문을 제시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은 이 귀한 복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될 것을 믿는다"고 말하며 믿는 자들의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강조했다.

추천의 말을 기록한 강준민 목사는 "이 가이오의 축복은 단순히 축복만을 이야기 하는 책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를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보여주었다"고 치하했다.

이찬수 목사 역시 "가이오를 향한 사도요한의 축복의 메시지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절실한 메시지"라고 강조하며 "책을 읽는 이들이 이 복을 함께 누리기를 소망한다"고 적었다.

본서는 제 1장 '자녀 됨으로 이미 최고의 축복을 얻었다', 제 2장 '믿음은 축복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다', 제 3장 '행함은 축복 누림의 안내서이다', 제 4장 '나눔은 너그러움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로 크게 나뉘어져 있으며 '사랑이 축복이 시작이다', '영혼이 잘되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한다', '범사가 잘되는 축복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 주신다', '강건함의 축복 내 몸이 예수의 생명역이 흐른다', '평강의 축복 예수에게서 나오는 영적 평강이 있다'. 등 14개의 소제목으로 구분돼 있다.

또한 본서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것은 복을 누리게 하려는 마중물과 같은 것이지 결코 대가를 요구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커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대가를 요구하신다면 우리가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본문 중에서)라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으며 자신의 진솔한 간증을 담아 읽는 이들에게 진한 감동을 안겨준다.

책에 관한 문의: (770)934-8282. 책 구입처: 미주내 각 기독교서점

(이성자 기자)

말씀 부흥 대성회

| 일시 : 2014년 2월 24일(월, 아침)부터 3월 6일(목, 저녁)까지 (새벽 5:30, 아침 10:30, 저녁 7:30)

| 장소 :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 문의: (213) 382-1450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조성근 목사 초청 부흥성회

| 일시 : 2014년 2월 21일(금) 저녁 7:30 22일(토) 새벽 5:30 저녁 7:30 23일(주일) 1부 8:00 2부 10:00

| 장소: 한인장로교회(담임 한재신목사) 1601. Art St. Bakersfield, CA 93312

| 문의: (661) 589-5791